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0호 5월 20일

평양 근로자사 1964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10 호 (248)
1964년 5월 (하)

차 례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김 일 성

친애하는 청년 대표 동무들!

오늘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 5 차 대회는 우리의 남녀 청년들 뿐만 아니라 전체 인민의 커다란 관심 속에서 자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당과 전체 인민이 동무들의 대회를 열렬히 축하하고 있으며 대회 사업의 성과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우리의 훌륭한 남녀 청년들을 무한히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믿고 있으며 그들에게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그의 전투적 조직인 민주 청년 동맹은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하여, 조국과 인민 앞에 세운 위대한 공훈으로 하여 당과 인민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 청년들은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일제 통치 시기에 우리 청년들은 언제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적 억압에 항거하여 나섰으며 자기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우리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령도 밑에 수 많은 애국 청년들은 직접 손에 무기를 들고 영웅적인 항일 유격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젊은 공산주의 혁명 투사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 주었으며 조선 청년들의 혁명적 기개를 온 세상에 떨쳤습니다. 항일 무장 투쟁은 우리 나라에서 민족 해방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청년 운동의 가장 빛나는 전통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항일 빨찌산의 혁명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조선 로동당에 의하여 교양되고 육성된 우리 청년들은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서 당의 부름에 항상 충실하였습니다.

해방 후 우리 청년들은 당의 령도 밑에 민주 청년 동맹의 기'발 아래 굳게 뭉쳐 북조선에서 인민 정권을 세우고 민주 개혁을 실시하며 민족 경제와 민족 문화를 복구 발전시키는 데 적극 참가함으로써 북조선에 혁명적 민주 기지를 창설하며 공고화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조국 해방 전쟁에서 우리 청년들은 무비의 애국적 헌신성과 불굴의 투지와 용감성을 발휘하여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피로써 사수하였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에서 우리 청년들이 세운 위대한 공훈은 우리 나라의 력사에 길이 빛날 것이며 우리 인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영웅하게 싸웠을 뿐 아니라 자기 조국 땅 우에 인민들의 행복한 락원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비상한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전후 복구 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은 전체 근로자들과 함께 허리띠를 졸라 매고 악전 고투하면서 공장을 일으켜 세우고 철도를 복구하였으며 페허로 된 도시와 농촌을 새로운 면모로 건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진하여 맡아 나섰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하려는 우리 근로자들과 청년들의 불타는 혁명적 열정, 그들의 무궁 무진한 창조력과 재능은 위대한 천리마 운동에서 전면적으로 발양되였습니다. 당의 령도 밑에 수 많은 남녀 청년들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참가하여 로동과 학습과 생활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켰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젊은 사회주의 건설자들은 자기의 선배들과 힘을 합하여 짧은 기간에 자립적인 사회주의 공업과 공고한 사회주의 농촌 경리를 창설하였으며 민족 문화와 예술을 찬란히 꽃피게 하였으며 자신들과 전체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인 새 인간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름답게 건설되고 날로 더욱 번영하는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는 그리고 행복한 우리 인민의 생활 속에는 영웅 조선의 남녀 청년들의 고귀한 투쟁 업적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과 인민의 진정한 아들딸로서, 외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보위하며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 제도를 창설하는 젊은 혁명 전사로서, 락후하고 빈곤하던 자기 조국을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국가로 전변시키는 젊은 건설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력사적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지난 18 년 간에 민주 청년 동맹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높이 찬양하며 자기의 영웅적 투쟁으로써 사회주의 조국의 위력을 강화하고 그 영예를 빛내인 우리의 민청원들과 전체 청년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무들!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계속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는 거대한 우월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나라의 정치 경제적 자립성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는 이미 기본적으로 해결되였으며 그들의 모든 살림살이는 날로 더욱 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근로자들은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가 제시한 강령적 방침에 따라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 개년 계획은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 건설이 전진함에 따라 청년들의 생활과 풍모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 났습니다.

오늘의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다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살며 일하며 배우고 있는 사회주의적 근로 청년들이며 다같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공동 리상을 위하여 싸웁니다. 우리 청년들은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을 통하여 더욱 단련되였으며 그들의 정치 의식 수준과 문화 수준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전체 청년들이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되였으며 혁명적 열정과 창조적 적극성으로 충만되여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검박하게 살며 승리에도 자만하지 않고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더 좋은 미래를 위하여 계속 용감하게 싸우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자랑스러운 풍모로 되였습니다. 청년들 속에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다같이 발전하고 다같이 행복하게 살며 어려운 일에 앞을 다투어 나서고 집단과 동지들을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공산주의적 도덕의 아름다운 기풍이 더욱더 발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 위업을 이어 나아갈 훌륭하고 믿음직한 새 세대를 육성하여 놓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나라 청년 운동이 더욱 높은 발전 단계에 들어 섰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이 번에 동무들의 대회에서 민주 청년 동맹을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 나라의 변화된 현실과 청년 운동 발전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을 로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조선 청년들의 더욱 위력한 전투적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청년 동맹의 각급 단체들을 튼튼히 꾸리고 동맹 조직 생활을 부단히 강화하며 전체 청년들 속에서 정치 사상 사업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 하여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 동맹과 청년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과 전체 조선 청년들은 우선 조선 로동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로동당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며 로동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북반부를 조선 혁명의 불패의 기지로, 우리 나라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의 더욱 튼튼한 근거지로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세째로, 조선 청년들은 조국 통일을 위한 전 민족적 투쟁의 선두에 서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 청년들과 굳게 단결하여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 내고 그의 주구들을 타도하며 우리 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굳세게, 더욱 용감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네째로, 조선 청년들은 세계의 모든 진보적 청년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그들과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과 전체 청년들은 로동당의 령도 밑에 자기에게 맡겨진 력사적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자신들의 더욱 행복한 앞날을 개척할 것이며 조국과 인민 앞에 새로운 위대한 공훈을 세울 것이며 세계의 진보적 청년들과 인민들의 공동 위업에 기여할 것입니다.

1

동무들!

청년들은 사회 발전의 선진 투사들이며 사회의 앞날을 대표하는 새 세대들입니다. 생기 발랄하고 원기 왕성하고 용감하며 두려움과 피곤을 모르는 것은 청년들의 특징입니다. 청년들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웁니다. 청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훌륭한 자질로 하여 사회 혁명과 새 사회의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사회 발전에서 진실로 큰 역할을 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령도를 받으며 어떻게 교양되고 훈련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청년들은 오직 옳은 령도와 교양을 받을 때에만 청년으로서의 모든 아름다운 자질을 전면적으로 발양할 수 있으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위대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자기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대표하는 믿음직한 일'군으로 자라 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청년 운동을 령도하며 청년들을 선진적인 사상으로 교양하고 그들에게 정확한 투쟁의 앞길을 가리켜 주는 것은 바로 조선 로동당입니다.

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향도적 력량이며 조선 혁명의 참모부입니다. 우리 당은 항일 무장 투쟁의 깊은 뿌리에서 자라 난 영광스러운 당이며 위대한 혁명 투쟁에서 검열되고 세련된 불패의 당입니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인민 대중에게 항상 정확한 투쟁 방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들을 승리에로 확신성 있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생각할 수 없으며 청년 운동의 발전도, 청년들의 더 훌륭한 앞날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선 청년들은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일하든지 항상 로동당의 령도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실성—이것은 우리 나라 청년 조직들과 모든 청년들의 활동에서 기본으로 되여야 합니다.

당에 충실하다는 것은 당을 옹호하고 보위하며 당 주위에 굳게 단결하며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은 중앙 위원회로부터 초급 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청년 조직들과 청년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그들을 당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당 정책의 집행에 이악하게 달라붙어야 하며 청춘의 모든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로동당의 후비대이며 우리 조국의 앞날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혁명의 장래 발전과 우리 조국의 앞날은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치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당의 붉은 전사로 자라 날 때 우리의 혁명 위업은 계속 힘 있게 전진할 것이며 우리 조국은 더욱더 번영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처한 력사적 시기와 그들이 담당할 중대한 사명에 비추어 청년들에 대한 정치 사상 교양은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 청년들은 항일 빨찌산들이 피어린 투쟁으로써 개척하였고 우리 당과 인민이 영웅적 투쟁을 통하여 꽃 피워 놓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무들은 우리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며 나라의 세기적 락후와 빈궁을 청산하고 진보와 문명에로의 비약을 이룩하는 시대, 우리 민족을 완전히 해방하며 통일되고 독립되고 부강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위대한 투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위대한 시대에 태여나 조국의 찬란한 새 력사를 창조하는 젊은 혁명 전사들이며 젊은 건설자들입니다. 우리의 자라 나는 새 세대들에게는 항일 무장 투쟁 시기부터 오늘의 사회주의 건설에 이르기까지 조선 공산주의 운동이 이루어 놓은 빛나는 전통과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며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여야 할 성스러운 임무가 부과되여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야만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숭고한 력사적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정치 사상 교양은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가장 중심적인 과업으로 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우리 당의 사상과 의지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맑스-레닌주의는 과학적 공산주의 학설이며 우리 당의 지도적 사상입니다. 맑스-레닌주의를 소유하여야만 부단히 변화하는 국내 국제 정세를 옳게 판단하고 혁명 승리의 명확한 방도를 찾을 수 있으며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앞날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동요 없이 싸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학설을 체득하며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맑스주의는 온갖 부르죠아 반동 사상과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발전되고 풍부화되여 왔습니다. 맑스-레닌주의와 그에 적대되는 각종 사상 조류와의 투쟁은 현대 사회의 계급 투쟁을 반영하는 것이며 계급 투쟁이 있는 한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를 소유하기 위한 투쟁은 단순한 리론 탐구가 아니라 날카로운 사상 투쟁입니다.

오늘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는 수정주의가 대두하여 맑스-레닌주의를 발광적으로 공격하여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과거의 모든 수정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진수를 없애 버리고 그것을 우경 기회주의로 바꾸어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요구에 순응하여 자신이 혁명을 포기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혁명을 하지 못 하게 하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특히 맑스-레닌주의적 수양과 혁명적 단련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기대를 걸면서 그들 속에 기회주의의 독소를 퍼뜨리며 그들을 사상적으로 무장 해제시키고 타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청년 동맹은 우리 나라 청년 운동 대렬에 수정주의적 조류가 침습하지 못 하도록 사상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 속에서의 맑스-레닌주의 교양을 반수정주의 투쟁과 결부하여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어떤 것이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이고 어떤 것이 수정주의인가를 스스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수정주의를 단호히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맑스-레닌주의를 소유한다는 것은 이 학설의 진수를 파악하며 그것을 혁명적 실천에 적용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맑스-레닌주의를 우리의 혁명적 실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사상과 방법을 체득하여야 합니다. 이 학설을 우리 나라의 현실, 우리 혁명의 전략과 전술, 우리의 일상적인 사업과 결부하여 깊이 연구하며 그것을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에서의 우리의 위력한 사상 리론적 무기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경험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교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교조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째로 삼키며 그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려 합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나라의 민족적 특성과 력사적 조건을 연구하지 않으며 맑스-레닌주의를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교조주의에 빠져 독자성을 잃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의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만 의존하려 하며 옳고 그른 것도 구분하지 못 하고 남이 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 가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체의 사상 리론 수준 제고에서나 실지 사업에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 속에서 우리 나라의 과거와 현재, 우리 인민의 투쟁 력사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며 민족적 자주 의식과 민족적 자부심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조선 청년들의 기본 임무는 조선 혁명을 완수하며 조선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임무를 수행하려면 그들은 반드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진리와 함께 그것을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학습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연구하여야만 조선 혁명의 정확한 전략 전술을 체득

할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사업에서 옳은 방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소유하여야만 당의 의도 대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신심이 생기고 투지와 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일상적으로 학습하고 연구하여 당 정책의 본질을 파악하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리 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청년들 자신의 사상으로, 그들의 확고한 신념으로 되며 그들의 모든 활동의 지침으로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새 세대들에 대한 사상 교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계급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입니다.

오늘 전 세계적 범위에서 국제 로동 계급과 제국주의 반동 세력 간에 치렬한 계급 투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 내부에서도 계급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는 남북으로 량단되여 있으며 우리는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 제국주의와 직접 대치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면서 민족 해방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이미 사회주의 제도가 승리하고 착취 계급이 청산되고 생활이 향상되였다고 하여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들 특히 새로 자라 나는 젊은 세대들 속에서 계급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더욱더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과거에 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자본가들이 자기의 부모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억압하고 착취하였는가를 알아야 하며 오늘도 남조선 인민들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동 통치 밑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들은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세계 도처에서 감행하고 있는 침략과 략탈 행위 그리고 아직도 해방되지 못 한 인민들의 처지를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항일 빨찌산들이 이루어 놓은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과 투쟁 업적을 일상적으로 깊이 연구하며 그들의 숭고한 혁명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기들의 생활이 향상되면 될수록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행복한 새 생활이 혁명 선배들의 간고한 투쟁과 막대한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 고귀한 전취물이라는 것을 더욱더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리 하여 전체 청년들이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과 지주, 자본가 계급의 착취적 본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들에 대한 적개심을 높이며 제국주의와 착취 제도를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열렬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 독립을

달성하며 자기의 로동과 국내 자원으로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할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청년들은 자력 갱생의 정신을 더욱 발양하여 부족한 것은 찾아 내고 없는 것은 만들어 내며 모든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청년들 속에서 혁명적인 사업 기풍과 혁명적인 생활 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가지며 그것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싸우는 것은 청년들의 특징입니다. 청년들을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며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앞날에 대한 열렬한 지향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씩씩하게 싸워 나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이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는 모든 곳이 청춘의 정열로 들끓고 혁명적 랑만으로 가득 차고 명랑하고 생기발랄한 분위기에 휩싸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리 하여 전체 청년들이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공산주의 전사가 되며 당이 제기하는 혁명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동무들!

당의 령도 밑에 우리 근로자들은 공화국 북반부에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하고 민족 경제의 튼튼한 자립적 토대를 닦아 놓았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자립적 경제 토대는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의 원천으로 되며 조국의 통일 독립과 전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물질적 담보로 됩니다.

오늘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과 청년들 앞에 나서고 있는 중요한 과업은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조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자들의 자각적이고 창조적인 로동에 의해서만 건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기 왕성하고 용감한 청년들은 새 사회를 건설하는 로력 전선에서 위대한 힘으로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배양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로력 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동에 대한 성실성은 공산주의자의 기본 표징으로 됩니다. 사회와 전체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정력적으로 일하며 로동을 통하여 자신을 부단히 단련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녀 청년들은 로동을 사랑하고 가장 영예로운 것으로 여기며 일하기를 싫어 하고 놀고 먹는 것을 착취 계급의 사상으로서 증오하며 배격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다 로동에서 자각적인 열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며 로동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돌격대로서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에 앞장 서야 하며 공업, 농촌 경리를 비롯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자기들의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 일하여야 합니다. 전체 청년들이 공산주의적 근로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장엄한 로력 투쟁에 헌신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더욱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기술 혁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로력적 열정이 현대적 기술과 결합되여야만 사회주의 사회의 높은 생산력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인민 경제의 전면적인 기술적 개건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설하여 놓은 자체의 중공업 토대에 의거하여, 우리 근로자들의 창발성과 재능을 동원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계와 기술로 장비하며 현대 과학의 성과를 생산에 대대적으로 도입하여야 합니다.

기술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선두에 서야 할 사람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입니다. 과거에 기술 문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 나라를 부강한 현대적 공업 국가로 전변시키며 오래 동안 식민지 통치 밑에서 온갖 고역에 시달려 온 우리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할 력사적 임무가 바로 우리 시대의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에게 부과되였습니다. 전체 청년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데 모든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새 기술을 도입하며 보급하는 데서 가장 적극적이고 대담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도처에서 락후한 수공업적 기술을 퇴치하고 생산 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낡은 기술 기준을 타파하고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술 혁명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광범한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동원하며 과학과 경험을 옳게 배합하는 것입니다. 로동자, 농민 청년들과 젊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서로 배우고 도와 주며 청년들의 대담한 발기와 창안들이 로련한 선배들의 경험과 결합될 때에만 기술 발전에서 더 훌륭하고 많은 성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은 이와 같은 협조 정신을 고도로 발양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집단적 기술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술 혁명의 투사가 되려면 반드시 과학과 기술 지식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청년들 속에서 유능한 과학 기술 간부들을 계속 대대적으로 양성하며 모든 청년들이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꾸준히 노력하여야 하며 자기가 맡은 부문의 기술에 정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적 근로자들은 자기의 창조적 로동으로 나라의 재부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사회의 공동 재산을 애호하며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책임 지는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개인 재산보다 공동 재산을 더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해치는 온갖 현상을 반대하여 강력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공장, 광산, 농장, 어장, 관개 시설, 철도, 항만, 도로 등 모든 생산 시설들과 생산 설비 그리고 학교, 병원, 도서관, 극장을 비롯한 모든 문화 보건 시설들을 애호하고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자기 나라의 모든 산과 하천들을 애호하며 한 그루의 나무, 한 포기의 풀이라도 다 인민의 소유로서 아끼고 사랑하여야 합니다.

매 사람이 국가 경리와 공동 경리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재부를 잘 거두고 아껴 쓰며 그것들이 인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되도록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청년들은 우리의 조국 강산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며 도시와 농촌들을 규모 있게 건설하고 살기 좋게 꾸리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또한 새 사회의 새 인간으로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 문화를 창조하는 선진 투사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거리와 마을, 자기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을 다 깨끗하게 문화적으로 꾸려 나가야 합니다.

이리 하여 낡은 사회가 우리에게 남겨 놓은 온갖 락후성을 퇴치하고 우리 나라의 모든 곳을 꽃 피는 사회주의 락원으로 전변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회주의 건설 특히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로동 계급과 농민, 로동 청년들과 농민 청년들의 단결을 부단히 강화하며 그들 간의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촌에서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고 농업 협동 경리를 공고 발전시킴으로써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을 퇴치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민들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와 방조가 없이는 이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농촌을 지원하는 것은 로동 계급 특히 청년 로동자들의 성스러운 의무입니다. 로동 청년들은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도시와 로동자구를 더 잘 건설하면서 모든 힘을 다하여 농민 청년들을 도와 주어야 합니다. 기술, 문화, 사상의 각 분야에 걸쳐 농촌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더 많은 청년 로동자들이 농촌에 진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 청년들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영광스러운 직접적 담당자들입니다. 농촌에서 일하는 우리 청년들은 자기의 중대한 사명에 대하여 높은 영예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로동 계급의 지원 밑에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더

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의 수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농촌을 현대적 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동 계급과 농민, 로동 청년들과 농민 청년들이 굳게 단결하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나아갈 때 공업과 농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사회주의 도시와 사회주의 농촌이 더욱더 번영할 것이며 로동자들과 농민들이 다같이 유족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조국 보위는 우리 청년들의 가장 신성하고도 영예로운 의무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보위하는 것은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위대한 혁명적 전취물을 보위하는 것이며 우리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위하는 것이며 조선 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전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승리의 담보로 되는 우리의 혁명 기지를 보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쑤들의 침략 책동에 대처하여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이며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더 강화하여야 합니다.

인민 군대 내 청년들은 전체 군인들과 함께 조국의 방선을 철벽 같이 다짐으로써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우리 인민의 혁명적 전취물과 행복한 생활을 계속 믿음직하게 보위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 군대와 함께 전체 로농 적위대원들과 청년들이 각각 자기의 초소에서 조국 보위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리 하여 우리 청년들과 근로자들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손에 낫과 마치를 들고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면서 조국 땅 우에 사회주의를 더 빨리 건설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청년 학생들과 소년들은 새 사회의 건설에 필요한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하겠습니다.

학생들 속에서 학습 규률을 강화하고 학습 열의를 더욱 높이며 교육과 생산 로동을 밀접히 결합하여 모든 학생들이 일반 과학 지식과 일정한 기술 지식을 충분히 소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체 청년들이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여야 합니다. 로동자, 농민 청년들은 한 가지 이상의 기술 지식을 소유하라는 당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그리고 장차로는 모두가 다 기사, 기수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애쓰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문학과 예술도 알아야 하며 높은 문화적 소양을 가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문학 서적을 애독하게 하며 그들 속에서 군중적인 문예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 속에서 공산주의 도덕 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청년 동맹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개인주의와 리기주의 사상을 결정적으로 반대하여 투쟁하며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고 동지를 사랑하며 인민을 사랑하는 정신을 더욱 배양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언제나 집단과 조직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여야 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 원칙에 따라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다같이 공동의 리상과 목적을 위하여 싸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자기의 부모 형제들을 사랑하며 학교에서는 선생과 동무들을 사랑하며 사회에 나가서는 자기의 동지들과 전체 근로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여야 합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선배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들의 로련한 경험에서 허심하게 배워야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또한 겸손하고 례절이 밝아야 하며 외모를 단정히 하며 공중 도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 속에서 체육을 대중화하고 생활화하여 그들을 로동과 국방에 더욱 믿음직하게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리 하여 우리의 새 세대들이 모두가 다 로동 계급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되고 지, 덕, 체를 겸비한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가 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계속 빠른 속도로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천리마 운동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천리마 운동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부단한 혁신을 일으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하기 위한 전·인민적 운동입니다. 그것은 생산에서의 집단적 혁신 운동과 근로자들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킨 훌륭한 공산주의의 학교입니다.

청년들 속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전체 청년들을 우리 당의 붉은 전사로, 유능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하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재능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로력 투쟁에 최대한으로 동원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은 달리는 천리마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다시 한 번 일대 혁신을 일으키며 비약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3

동무들!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민족 해방 혁명을 완성하는 것은 전체 조선 인민과 조선 청년들 앞에 나서고 있는 최대의 민족적 과업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벌써 근 19 년 동안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거기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자기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 군사 기지로 전변시켰으며 남조선 인민들을 기아와 빈궁, 테로와 학살이 지

배하는 생지옥에 몰아 넣었습니다.

지금 남조선의 근로 청년들은 2중 3중의 착취와 압박 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으며 수 많은 청년들이 배움의 길을 잃고 일터에서 쫓겨 나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학원은 모리화되고 파쑈화되였으며 청년 학생들은 괴뢰군에 끌려 나가 미국 침략자들과 그의 주구들의 야수적인 탄압 밑에 자기 동포들과 형제 자매들을 반대하여 총'부리를 겨눌 것을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참을 수 없는 천대와 모욕을 받고 있으며 생존의 권리마저 항시적으로 위협 당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하루 속히 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서 벗어 나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청년들에 대한 파쑈적 탄압과 테로는 즉시 중지되여야 하며 그들에게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여야 합니다. 근로 인민의 자제들을 비롯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여야 하며 학원을 민주화하고 청년 학생들이 과학 탐구의 완전한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근로 청년들에게는 모두다 일'자리가 있어야 하며 그들의 로동 조건과 생활 조건은 근본적으로 개변되여야 합니다. 전체 청년들이 정치 사회 활동에 광범히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반드시 이 모든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여야 하며 공화국 북반부의 청년들과 같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되여야 합니다.

청년들의 운명은 언제나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련결되여 있습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우리 민족이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게 될 때에만 오늘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 날 수 있으며 자기들의 광명한 앞날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을 몰아 내고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 자본가, 친일파, 친미파 등 민족 반역자들을 타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조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실현할 수 없으며 따라서 남조선 청년들의 해방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남조선 인민들과 함께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미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며 미국 군대를 우리 강토에서 몰아 내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 나서야 합니다.

청년 학생들은 자기의 부모 형제 자매들에 대한 미국 군대의 만행을 규탄하고 저지시켜야 하며 침략자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 하게 하여야 합니다. 미국 침략 군대로 하여금 도처에서 청년들의 항거에 부딪쳐 우리 강토에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체 남조선 청년들이 강제 징집을 반대하며 미국 침략자들에 대한 온갖 협력을 단호히 거부하여야 합니다.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국방군》에 끌려 나간 청년들은 거의 전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인민의 자제들입니다. 그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시에 맹종하여 자기의 부모 형제들과 동포들에게 총'부리를 겨눌 것이 아니라 응당 인민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국군》 내 청년 장병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도구로 리용되는 치욕스러운 처지에서 벗어 나야 하며 외래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근로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그 침략 도구에 불과한 남조선 괴뢰 정권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지금 남조선의 괴뢰 도당은 일본 군국주의 세력까지 끌어 들여 남조선을 미 일 제국주의의 이중적인 예속에 밀어 넣으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괴뢰 도당의 파쑈적 탄압과 매국 정책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괴뢰 정권을 타도하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민족 해방 투쟁에서 청년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민지, 예속 국가의 청년 학생들은 민족적 각성이 높고 반제국주의 의식이 강합니다. 민족적 억압과 멸시를 극도로 증오하며 그것을 반대하여 가장 용감하게 싸우는 것이 바로 청년들입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외래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용하게 투쟁한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 통치 시기에 남조선의 청년 학생들은 광주 학생 사건을 비롯한 대규모적인 반일 투쟁을 통하여 조선 청년의 열렬한 애국주의 정신과 혁명적 기개를 시위하였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총검으로 비호하던 리 승만 괴뢰 정권도 주로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남조선 청년들은 원쑤들의 야만적 탄압과 테로에도 굴하지 않고 박 정희 괴뢰 도당의 매국 정책을 반대하여 완강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남조선 청년들이 미국 식민지 통치를 증오하고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휘황한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 청년들이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억압에 굴종할 수 없으며 오늘의 비참한 남조선 사태를 그 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자유와 권리를 귀중히 여기며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남조선의 모든 청년들은 전 민족적인 반미 구국 투쟁에 더욱 용감히 나서야 하며 이 성스러운 투쟁에서 위훈을 떨쳐야 합니다.

남조선 청년들이 우리 인민의 거족적인 해방 투쟁에서 지닌 영광스러운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자기들의 투쟁 대오를 튼튼히 결속하고 청년 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학생 청년들은 아직도 로동자, 농민 청년들과 같이 통일적인 혁명적 청년 조직에 결속되지 못 하였으며 학생 청년들의 투쟁은 로동자, 농민 청년 대중의 투쟁과 충분히 결합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인민 봉기에서도 청년 학생들이 용감하게 싸웠으며 많은 고귀한 피를 흘렸으나 그들은 자유와 해방을 전취하지 못 하고 투쟁의 열매를 원쑤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이 쓰라린 경험에서 교훈을 찾아야 하며 자기들의 혁명 력량을 더욱 철

저히 준비하여 투쟁을 끝까지 계속하여야 합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며 로동자, 농민들과 근로 인테리들의 선진 분자들로 조직되는 혁명적 당을 창건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이러한 당의 활동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청년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청년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적 진보적 사상을 가진 핵심 대렬을 꾸려야 하며 혁명적인 청년 조직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적인 혁명적 청년 조직을 도처에 결성하고 이 조직을 통하여 공장과 농촌의 근로 청년들과 혁명적 학생들 속에서 핵심을 길러야 합니다.

혁명적 청년 조직은 공장과 농촌, 학원들에서 진보적 청년들을 교양하여 그들을 자기 대렬에 튼튼히 묶어 세워야 합니다.

청년들의 핵심 대렬을 꾸리는 동시에 각계 각층 청년들과의 통일 전선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신앙과 정견, 출신의 차이를 막론하고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체 청년들을 반미 구국 통일 전선에 묶어 세워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할 수 있는 혁명의 주력군은 로동자, 농민 대중입니다. 로동자와 농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청년 학생들만이 진정으로 혁명적인 청년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운동은 오직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야만 진정한 혁명 운동으로 될 수 있으며 해방 투쟁에서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로동자와 농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로동자, 농민 대중 속에 깊이 들어 가 그들과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의 광범한 청년들이 혁명적 당의 령도 밑에 하나의 전투 대오로 결속될 때 그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거대한 혁명 력량으로 될 것이며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과 조국 통일 위업에 위대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 내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남북 조선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의 공동의 투쟁 과업입니다. 남북 조선 청년들은 조국 통일의 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북조선 청년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남조선 청년들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여야 합니다. 북조선 청년들은 항상 남조선 청년들의 어려운 처지를 잊지 말고 그들과 함께 민족 해방 혁명을 끝까지 완수할 결의 밑에 북반부의 혁명 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욱 정력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나 남조선 청년들과 힘을 합하여 조국 통일 위업을 성취할 결정적 투쟁에 동원될 수 있도록 준비되여 있어야 합니다. 북반부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하는 모든 성과들과 그들의 강력한 지원은 싸우는 남조선 청년들에게 커다란 힘으로 될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을 리간시키며 남북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이 서로 반목질시케 하려고 온갖 교활한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북 간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도, 경제 문화 교류도 한사코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 조선 청년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민족 분렬 정책을 단호히 분쇄하고 호상간의 단결과 협조를 위하여, 전 민족적 반미 구국 통일 전선의 형성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남북 간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을 위하여, 경제 문화 교류를 위하여 더욱 완강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이리하여 온갖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 자신의 손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며 우리 민족 자체의 힘과 자원으로 통일되고 부강한 독립 국가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오늘 남조선에서 식민지 통치는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빠져 들어 가고 있으며 인민들의 혁명적 기세는 더욱 높아 가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힘도 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궐기한 애국적인 조선 청년들과 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조선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은 종국적으로 파탄될 것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 것입니다.

4

동무들!

조선 인민의 혁명 투쟁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 인민들의 공동 투쟁의 일환이며 조선 청년 운동은 국제 청년 운동의 구성 부분입니다.

조선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조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동시에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과 청년들의 공동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모든 나라에서의 혁명 운동을 백방으로 지지 성원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충실한 것입니다.

오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세계 제국주의 세력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며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진압하며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려고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열핵 전쟁을 발광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도처에서 침략과 략탈 행위를 감행하며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인민들을 반대하는 범죄적인 《특수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모든 평화 애호 인민들과 청년들 앞에 나서고 있는 공동의 투쟁 과업입니다.

평화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에 대한 온갖 환상과 전쟁 공포증을 배격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며 그들에게 타격을 주고 압력을 가함으로써만 평화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전체 인민과 함께 조선에서의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의 전쟁 도발 음모를 파탄시키며 평화와 사회주의의 동방 초소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며 특히 미 제국주의자들의 추동 하에 또다시 우리 나라에 기여 들려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침략 기도를 결정적으로 분쇄하여 버려야 합니다. 조선 청년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 청년들과 굳게 단결하여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을 반대하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더욱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세차게 타 오르고 있는 민족 해방 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 력량이며 세계 평화의 강력한 요인입니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은 자기들의 영웅적 해방 투쟁으로써 자기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고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세계 제국주의의 종국적 멸망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조선 인민은 오래 동안 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압박을 받아 왔으며 오늘도 미 제국주의의 남조선 강점을 반대하고 나라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와 민족적 억압을 반대하며 언제나 피압박 민족들의 편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조선 청년들은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식민지, 예속 국가의 인민들과 청년들을 백방으로 지지 성원하여야 하며 그들과 굳게 단결하여 지구 상에서 식민주의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 청년들과의 전투적 단결을 부단히 강화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을 위한 공동 투쟁에서 그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인류의 리상이며 광명한 미래입니다. 전 세계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들의 종국적인 목적은 제국주의를 완전히 타도하고 세계적 범위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진영은 공산주의에로의 인류의 전진 도상에서 국제 로동 계급이 달성한 가장 위대한 전취물입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과 그 위력의 장성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전 세계 인민들의 승리의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조선 청년들은 사회주의 진영을 보위하며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이 진영의 통일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파괴하며 이 진영의 위력을 약화시키고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 밑에 사회주의 국가 청년들과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며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의 모든 근로 청년들과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그리 하여 근로 청년들의 공동의 리상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과 전체 조선 청년들은 민주주의적 국제 청년 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적 청년들의 국제적 운동이 건전하게 발전하며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반제국주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하며 특히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공격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제 무대에서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난 진보적 운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국주의 특히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세계 민주 청년들의 자유와 해방, 그들의 광명한 앞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제국주의 기치 하에서만 진실로 광범한 진보적 청년들을 결속시킬 수 있으며 청년 운동이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운동으로서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 인민들의 공동 투쟁에서 위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선 청년들은 국제 청년 운동을 강력한 혁명 력량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 세계 진보적 청년들과 함께 반제국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청년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하며 세계 각지에서 일어 나는 인민들의 모든 반미 투쟁을 지지 성원하여야 합니다. 미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을 폭로 규탄하는 진보적 인민들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반미 투쟁의 불'길이 온 세계 도처에서 더욱 세차게 타 오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반적 국제 정세는 인민들의 혁명 위업에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인민들의 투쟁 대렬은 계속 장성하고 있으며 결속되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장성하는 혁명 력량은 결국에 가서 제국주의를 완전히 타도하고 사회주의의 세계적 승리를 가져 오게 할 것입니다.

조선 로동당이 령도하는 우리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계속 힘차게 싸워 나아감으로써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의 공동 위업에 기여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무들!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반석 같은 토대를 닦아 놓았습니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는 조선 혁명의 불패의 기지로, 조국 통일의 강력한 성새로 되였습니다.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애국적 민주주의 력량은 계속 장성하고 있으며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은 더욱더 궁지에 빠져 들어 가고 있습니다.

반제 민족 해방 혁명을 완수하며 사회주의의 전국적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달성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로동당의 세련된 령도 밑에 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뚜렷이 내다 보면서 승리의 대로를 확신성 있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전체 인민의 이 장엄한 투쟁에서 앞장 서 나아가는 가장 씩씩하고 생기 발랄한 부대입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조선 로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서, 영웅 조선 인민의 아들딸로서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계속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당과 인민의 두터운 사랑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조선 청년 운동의 강령적 과업

전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거대한 관심과 열렬한 축하 속에서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 5 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 하에 지난 기간 민주 청년 동맹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을 총화하고 동맹 앞에 나선 새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을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하였다.

대회에서는 김 일성 동지의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과업에 대한 력사적인 연설이 있었다.

이 연설에서는 조선 청년 운동이 걸어 온 승리와 영광에 가득 찬 행로가 개괄되고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 선 청년 운동의 나아갈 길이 밝혀졌으며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앞에 제기된 기본 과업들이 명시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연설은 조선 청년 운동의 전투적 강령이며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과 전체 청년들의 활동과 생활의 지도적 지침이다.

대회 사업의 전 과정은 지난 기간 민주 청년 동맹이 우리 당의 후비대로서 국내외 원쑤들을 반대하고 조국의 영예를 고수하며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공훈을 세웠으며, 전체 청년 대렬이 우리 당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되여 있으며, 앞으로도 당의 기치 하에 조국의 통일 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 있음을 보여 주었다.

실로 금번 대회는 조선 청년들의 위대한 승리자의 대회, 조선 청년 운동을 더욱 높은 발전 단계에로 올려 세운 력사적 전환의 대회로서 조선 혁명 운동과 청년 운동의 력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김 일성 동지의 연설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금번 대회에서 《민주 청년 동맹을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 나라의 변화된 현실과 청년 운동 발전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결정적으로 촉진시킴으로써 혁명적 민주 기지를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더욱 튼튼한 근거지로 만들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며 나아가서 이 땅 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청년들의 생활과 풍모에서도 거대한 전변이 일어 났다.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다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적 근로 청년으로 되였으며 다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공동 리상을 위하여 힘을 합쳐 투쟁하고 있다. 청년들은 당의 꾸준한 교양과 혁명적 실천 투쟁을 통하여 더욱 단련되였으며 그들의 정치 사상 의식과 문화 수준은 높아지고 그들 속에서는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 기풍이 높이 발양되고 있다.

조선 인민 앞에 제기된 새로운 혁명 임무와 우리 청년들의 생활에서 일어난 이 모든 변화는 청년 동맹을 더욱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키며 조국의 통일 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그의 역할을 한 계단 더 높이 올려 세울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이로부터 금번 대회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가 제시한 방침에 따라 민주 청년 동맹을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 청년 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우는 력사적 전환점으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연설에서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앞에 나서고 있는 임무를 명백히 제시하였다.

청년들을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도록 교양하는 것은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가장 중요한 혁명 임무이다.

《청년들은 사회 발전의 선진 투사들이며 사회의 앞날을 대표하는 새 세대들이다.》(김 일성)

그러나 청년들이 사회 발전에서 어떤 역할을 놀게 되는가 하는 것은 그가 누구의 령도를 받으며 어떻게 교양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조선 로동당은 영광스러운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 전통을 계승한 조선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선봉대이며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의 길로 확신성 있게 령도하고 있는 조선 혁명의 세련된 참모부이다.

조선 인민은 지난 기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맑스-레닌주의적 령도 밑에 중첩되는 난관들을 용감하게 물리치면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로정을 걸어 왔으며 앞으로도 오직 당의 령도 하에서만 광명한 미래를 개척해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청년들도 오직 조선 로동당의 령도를 받고 그에 무한히 충실하여야만 새 사회 건설에서 선진 투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조국의 운명을 량 어깨에 걸머지고 나아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 날 수 있다.

우리 당의 령도를 받지 않고 우리 당에 충실하지 않고서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로 될 수 없으며 조선 혁명에 충실할 수 없고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도 충실할 수 없다.

《당에 충실하다는 것은 당을 옹호하고 보위하며 당 주위에 굳게 단결하며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김 일성)

이것은 조선 혁명을 위하여,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려는 모든 사람들과 청년들이 지녀야 할 혁명 투사의 고상한 품성이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각급 조직들은 청년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교양과 당 정책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로동 계급의 세계관, 우리 당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청년 운동 대렬 내에 수정주의가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며 일체 활동에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도록 완강히 투쟁하여야 한다.

특히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로작을 체계적으로 연구시켜 모든 청년들이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붉은 공산주의 전사가 되게 하여야 한다.

청년 동맹과 그의 각급 조직들은 청년들 속에서 계급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과 착취 제도의 반동적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동맹 조직들은 또한 청년들을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으로,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리 하여 전체 청년들을 우리 당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시키고 그들 속에 당'적 사상 체계를 더욱 확고히 수립하며 어느 때,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일편단심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를 견결히 보위하고 사수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도록 그들을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

전체 청년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참가시키는 것은 청년 동맹의 중요한 과업이다.

지난 기간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 밑에 국내외 원쑤들과의 치렬한 계급 투쟁 속에서, 그리고 모진 간난 신고를 극복하면서 공화국 북반부에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닦아 놓았다.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자립적 경제 토대는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의 원천으로 되며 조국의 통일 독립과 전조선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물질적 담보로 된다.》 (김 일성)

각급 동맹 조직들은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급속히 촉진시키기 위하여 청년들을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로 교양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힘들고 어려운 일에 항상 앞장 서게 하며, 기술 혁명 수행에서 선도적 역할을 놀게 하며, 공동 재산을 애호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정신에 립각하여 로동 청년들과 농민 청년들의 단결과 호상 협조를 강화하며 로동 청년들이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적극 지원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각급 동맹 조직들은 또한 원쑤들의 침략 책동에 대처하여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이고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투쟁에 청년 대중을 적극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임무를 성과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청년들을 지, 덕, 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교양 육성하여야 한다.

지, 덕, 체의 과업—이것은 새 형의 인간을 육성할 데 대한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청소년 교육 교양의 총적 방향이며 내용이다.

각급 동맹 조직들은 전체 청년들을 맑스-레닌주의 세계관과 로동 계급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시키며 공산주의 도덕 품성과 높은 과학 지식을 소유하고 건전한 체력을 가진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교양 육성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각급 동맹 조직들은 또한 청년들 속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청년들을 우리 당의 붉은 전사로 육성하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재능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로력 투쟁에 최대한으로 동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들과 전체 조선 청년들은 조국 통일을 위한 전민족적 투쟁의 선두에 나서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민족 해방 혁명을 완성하는 것은 전체 조선 인민과 조선 청년들 앞에 나서고 있는 최대의 민족적 과업이다.》(김 일성)

외래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한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남조선의 청년 운동은 해방 후 계속 발전되여 왔다.

오늘도 남조선의 청년 학생들은 원쑤들의 야만적 탄압과 테로에도 굴하지 않고 박 정희 도당의 매국적 정책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으며 미제의 식민지 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남조선 청년 학생 운동에는 적지 않은 부족점이 있다. 《남조선에서 학생 청년들은 아직도 로동자, 농민 청년들과 같이 통일적인 혁명적 청년 조직에 결속되지 못하였으며 학생 청년들의 투쟁은 로동자, 농민 청년 대중의 투쟁과 충분히 결합되지 못 하고 있다.》 (김 일성)

이러한 부족점으로 하여 남조선의 청년 학생 운동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으며 자유와 해방을 전취하지 못 하고 있다.

남조선의 청년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청년 학생들이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는 혁명적 당의 창건과 그의 활동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또한 시급한 시일 내에 통일적인 혁명적 청년 조직을 창건하고 청년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적 진보적 사상을 가진 핵심 대렬을 꾸려야 하며 각계 각층 청년들과의 통일 전선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로동자, 농민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남조선의 청년 운동을 목적 지향성 있게 전개하며 청년 학생 대렬을 결속시키고 그의 력량을 부단히 확대하여 청년 운동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 내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남북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의 공동의 투쟁 과업이다.

남북 조선 청년들은 미제의 민족 분렬 정책을 단호히 분쇄하고 전 민족적 반미 구국 통일 전선의 형성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서로 굳게 단결하여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조국 통일 위업을 성취할 결정적 투쟁에 동원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

전 세계 진보적 청년들과의 국제주의적 련대성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이다.

조선 청년들은 우선 조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세계 혁명을 위한 공동 투쟁에 적극 참가하여야 하며 모든 나라 진보적 청년들의 혁명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여야 한다.

이것은 조선 청년들이 지니고 있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의무이다.

조선 청년들이 자기들에게 부과된 이러한 국제주의적 의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전 세계 진보적 청년들과 굳게 단결하여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을 반대하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며

둘째로,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과 청년들을 백방으로 지지 성원하여야 하며

세째로,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밑에 사회주의 국가 청년들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의 모든 근로 청년들과 굳게 단결하며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네째로, 국제 청년 운동을 강력한 혁명 력량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 세계 진보적 청년들과 함께 반제국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줄기차게 싸워 나아감으로써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 인민들과 청년들의 공동 위업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금번 대회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연설은 조선 청년 운동의 발전과 청년들의 생활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연설은 전체 청년 조직과 청년들을 조국의 통일 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당의 혁명 위업 수행에 적극 조직 동원하며 그들을 당에 무한히 충실하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유능한 새 사회 건설자로 교양 육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이 연설은 또한 남조선 청년 학생 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남북 조선 청년들의 단결을 가일층 강화하며 남조선 청년 학생들을 반미 구국 투쟁에로 더욱 힘 있게 불러 일으키는 커다란 고무적 힘으로 될 것이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각급 조직들과 청년들은 김 일성 동지의 연설을 깊이 연구하고 거기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들을 실생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당과 인민의 두터운 신뢰와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여야 할 것이다.

1939년 무산 지구 전투를 회상하면서

오 백 룡

오늘 우리는 일제 식민지 통치의 그 암담하던 시기에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령솔 하에 조직 전개된 무산 지구 전투 승리 25 주년을 뜻깊게 맞이한다.

돌이켜 보면 무산 지구에 대한 진공 방침이 얼마나 정확한 것이였고 그 전투에서 김 일성 동지의 령군술이 얼마나 탁월한 것이였으며 그 승리의 의의가 얼마나 컸던가를 감명 깊게 생각하게 된다.

무산 지구 전투는 일제를 소탕하는 수백 수천의 전투들 중에서도 그 규모와 정치, 군사 전략 상으로 보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 ⁂

1938년 11월에 있은 몽강현 남패자 회의는 우리 혁명군이 국경 지대에 진출하여 국내에로 무장 투쟁을 확대할 전략적인 과업을 제기하였다.

이리 하여 우리가 《고난의 행군》 끝에 장백현에 이른 것은 1939년 4월 초였다.

장백현에 도착하자 곧 북대정자 회의가 열렸다.

김 일성 동지는 바로 이 회의에서 당시의 형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일제 침략자들에게 거듭되는 타격을 가함으로써 적들의 야수적 탄압에 의해 파괴된 혁명 조직들을 시급히 복구하며 국내의 광범한 인민들과 애국 청년들을 반일 전선에 궐기시키기 위해 무산 지구를 공격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사실 당시로 말하면 조선 인민의 전도에 검은 구름이 떠돌고 있던 우리 나라 력사에서도 매우 엄혹한 시기였다.

일제는 극악한 파쑈 집단들인 독일, 이태리와 《반공 협정》을 체결하고 《반공》 깜빠니야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쏘련을 위협하였고 중국 혁명을 압살하려 하였으며 몽고에도 침략의 마수를 뻗치려 하였다. 적들은 쏘련과 몽고에 대하여 무장 충돌을 빈번히 도발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침략 전쟁을 더욱 확대하였다.

중 일 전쟁을 개시한 후 일제는 국내에서 저들의 지반을 공고히 하여 보려고 국내 혁명 운동에 대한 파쑈적 폭압을 일층 강화하는 한편 대대적인 《토벌》로써 항일 무장 투쟁을 압살해 보려고 발광하였다.

놈들은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을 실시하여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침략 전쟁에 모조리 동원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경찰과 헌병, 군대를 대대적으로 증강하였다. 또한 《국민 정신 총동원 련맹》, 《조선 반공 협회》 등 파쑈 단체들과 각종 파쑈적 악법들을 조작하여 조

선 인민의 반일 운동을 혹독하게 탄압하였다.

일제의 파쑈적 공세는 특히 조선 공산주의자들에게 집중되였다.

1938년 가을부터 놈들은 10여만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소위 지역 별 담당제와 《진드기 전술》 등을 써 가면서 우리 혁명군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을 감행하였다.

이와 함께 일제는 가장 악질적인 경찰을 혜산, 장백 일대에 동원하여 수천 명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 인민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였으며 조국 광복회 조직들과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의 수 많은 조직들을 파괴하였다.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자 민족 개량주의자들과 종파 분자들은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일제 앞에 투항 변절하거나 그들의 주구, 간첩으로 전락하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형편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국내 인민들에게 조국의 독립과 해방에 대한 승리의 신심을 주어야 했으며 파괴된 혁명 조직들을 복구해야 했으며 나아가서 무장으로 쏘련을 옹호하며 중국 혁명을 지원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했다.

그리 하여 김 일성 동지는 대병력에 의한 《토벌》이 진행되는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 쥐고 국내 무산 지구에로 진출함으로써 적들에게 타격을 주는 작전을 전개하게 되였다.

특히 무산 지구는 김 일성 동지의 방침에 근거하여 1937년에 최 현 동지가 인솔한 조선 인민 혁명군이 이미 진공한 바 있고 또 림산 로동자들이 집중되여 있는 지대로서 이 지구에 대한 진출은 강한 혁명적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며 전국 각지에 그 영향을 급속히 전파시킬 수 있었다. 무산 지구는 또한 일제의 정치 군사적 요지의 하나로서 여기에 진공하는 것은 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었다.

조국 진공에 대한 명령이 내렸을 때 우리들은 적에 대한 복수와 조국 해방에 대한 일념에 불탔었다.

우리는 김 일성 동지의 전략적 방침을 실천하기 위하여 장백 일대에서 국내 진공 작전의 물질 정신적 준비를 갖추면서 구가점, 십오도구, 반절구 등 지점들을 습격하여 적을 소탕하였다.

장백 국경 일대에서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한 우리들은 소덕수 마등창에서 1939년 5.1 절을 맞던 그 기세로 김 일성 동지의 친솔 하에 조국 진군의 길에 들어 섰다.

5월 18일 오전에 우리는 오매에도 잊을 수 없었던 조국 땅에 올랐다.

조국! 우리 모두가 조국 땅에 들어섰다는 감격으로 하여 얼마나 들끓었고 기쁨에 넘쳐 환호를 올렸던가! 우리는 조국의 한 줌의 흙, 한 그루의 나무, 조국의 모든 것을 정답게 바라 보면서 자기의 고향과 부모 처자들을 생각하였다.

우리는 이 정든 조국 땅에 둥지를 틀고 우리의 부모 형제 처자들의 고혈을 빨아 내며 온갖 만행을 감행하는 놈들을 기어이 몰아 내야 한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싸움의 길로 나아갔다.

우리는 국내 진격의 1 주일 간, 가는 곳마다에서 놈들을 족쳐 무리 죽음을 안겨 주었으며 우리 인민 혁명군의 위용을 남김 없이 떨치였다.

* *

우리가 무산 지구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은 가장 중요한 담보로 된 것은 적정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면밀한 작전 계획을 세우고 항상 주동적 립장에 서서 대담하고 과단성 있게 전투를 지휘하며 인민에 의거하고 그들의 힘을 불러 일으킨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군술이였다.

무산 지구 전투는 대부대로 국내 깊이에까지 들어 와 진행된 큰 전투였다.

당시 적들이 방대한 력량을 동원하여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 부대가 국내 깊이에 진격한다는 것은 사실 상 용이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 혁명군은 바로 김 일성 동지의 주동적이며 대담한 전투 지휘에 의하여 놈들에게 련속적인 혼란과 패배를 주면서 그것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우리 인민 혁명군이 장백 일대에로 진출하자 이를 탐색한 일제는 장백현 주둔 오니시 부대와 김 정신대의 포부대, 장조 부대 등 500여 명을 동원하여 장백현 24 도구 부근에 배치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함남, 함북에 주둔하고 있던 수백 명의 국경 경비대와 경찰대를 동원하여 국경선에 대한 경비진을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혜산, 갑산, 신갈파, 호인 등 각지의 경찰서에서 300여 명의 경찰을 선발하여 《특별 토벌대》를 편성하고 우리의 행동 방향을 탐지하기에 광분하였다.

리 운신, 최 인덕, 리 철수, 김 성국, 류 영찬 동지들의 정찰 보고에 의하여 적들의 이러한 동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신 김 일성 동지는 청봉에서 리명수 부근의 목재소와 마을들에 정치 공작원들을 파견하였다.

청봉 숙영지를 떠난 조선 인민 혁명군은 전창, 베개봉 숙영지를 거쳐 삼지연에서 휴식한 후 우리를 《경비》하겠다고 닦아 놓은 적의 군용 도로를 리용하여 무포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 때 적들은 우리 혁명군이 아무리 날고 뛴다 해도 자기들의 군용 도로로 가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주의도 돌리지 않고 있었다.

김 일성 동지는 이것을 타산하고 대담하게 《갑무 경비 도로》를 따라 우리 혁명군이 행군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적들의 눈을 피하여 하루 동안에 100리 길을 걸어 무포에 이르게 하였다.

사실 이 때 그렇게 하지 않고 대부대가 울창한 밀림을 헤치고 나간다면 대원들을 피로하게 하면서도 그러한 기동성을 보장할 수 없었을 것은 물론이고 적들에게 발견되여 추격과 포위에 빠질 수 있었을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5월 22일 주도 면밀한 작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대를 불의에 무산 지구에로 진격케 하였다.

개활 지대를 따라 70~80 리에 달하는 적의 종심 깊이에 들어 가야 하는 만큼 우리는 행군 도중 경계를 특별히 강화하면서 속히 대홍단'벌을 횡단하여 국사당 부근에 이르러 두 방향으로 행동을 전개하였다.

오 중흡 련대장이 지휘하는 7 련대는 로은산 우측 신개척 부락에 진출하여 로동자들의 협조 밑에 일본인이 경영하

던 《북선 제지 주식 회사》 계통의 목재 작업소와 돌쭉 회사를 습격하였으며 김 일성 동지의 령솔 하에 사령부와 김 일 정치 위원이 인솔한 8 련대는 신사동 쪽으로 진출하여 철도 연변에서 따라 올라 오는 적들을 견제하는 한편 인민들 속에서 정치 공작을 광범히 전개하였다.

5월 23일에 있은 대홍단'벌 전투는 가렬하고도 통쾌한 매복전이였다.

전투가 있기 전날 저녁에 적들은 가소링차를 타고 올라 오다가 우리의 위세에 압도되여 도중에 차를 세우고 도망쳤다.

그러나 김 일성 동지는 적들이 다시 추격해 오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부대를 대홍단'벌 집결처에 철수시켜 지형상 유리한 지점에 매복진을 치게 하였다.

예견은 틀림 없었다.

판평, 붉은 바위, 사동 등지에서 부랴부랴 긁어 모은 일제의 수비대와 경찰대들은 새벽 안개를 뚫고 철수하여 오는 7 련대 동무들을 따라 국사당 부근으로 추격하여 왔다.

정면 고지에서 이 정형을 보고 계시던 김 일성 동지는 7 련대에 매복진을 시급히 통과하라는 지시를 주고 적들이 매복진 안에 들어 올 것을 기다렸다.

이윽고 사격 명령이 내리였다.

10여 정의 경기와 수백 정의 보총이 일제히 불을 토하기 시작하였다.

적들은 완전히 독 안에 든 쥐 모양이였다.

앞에서 가던 7 련대 동무들도 되돌아서서 맹렬히 사격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명령에 의하여 나는 일부 력량을 인솔하여 동쪽으로 우회하여 측면 공격을 가하였다. 적진에서는 대혼란이 일어 났다.

고지를 뒤흔드는 정의의 총성은 원한에 사무친 이 땅에 새 힘을 안겨 주는 듯 벅차게 울려 퍼졌다.

겨우 살아 유곡 방향으로 도망치면 적들은 얼마나 혼비백산하였던지 응원하러 오는 부대와 마주쳐 저들끼리 악을 쓰며 맞불질을 하는 추태까지 빚어 냈다.

무산 지구 전투에서 김 일성 동지는 특히 인민의 힘을 믿고 그들에게 의거하여 그들을 혁명 투쟁에 불러 일으키는 데 많은 주의를 돌렸다.

우리 혁명군 대원들과 정치 공작원들은 전투의 바쁜 도중에도 가는 곳마다에서 마을 사람들 속에 들어 가 우리 혁명군에 대하여서와 조국 광복회 10 대 강령과 《3.1월간》 기타 혁명적 출판물의 내용을 해설하여 주었으며 국내 진군의 목적에 대하여서도 알려 주었다.

또한 유격대원들은 놈들에게서 로획한 식량, 피복, 신발 등 전리품들을 지방 인민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극진히 보살펴 주었다.

김 일성 동지는 몸소 인민들 속에서 조국 광복회 10 대 강령을 알기 쉽게 들려 주면서 일제는 멸망하고 조선 인민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말씀은 군중들을 한없이 격동시켰으며 그들에게 조국의 자유와 해방에 대한 굳은 신념을 북돋아 주었다.

천대와 억압만 받아 왔고 나라 없는 설음 밖에 모르던 마을 사람들은 그처럼 흠모하고 존경해 온 민족의 영웅 김 일성 동지의 모습을 눈 앞에 바라 보면서 다함 없는 감격에 잠기였다.

실로 우리는 약 1 주일 간 조국 땅을 밟고 있는 기간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에게 거대한 혁명적 영향을 주었다.

지금도 청봉 숙영지에서 유격대원들이 나무 껍질을 벗기고 구호를 쓰던 일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조선 민족의 자유와 독립 해방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자!》

《조선 청년들이여, 속히 달려 나와 일제를 반대하는 전쟁에 참가하자》

《궐기하라! 단결하라! 전체 로력 대중들아,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자!》

《항일 대전 승리 만세!》 등 이러한 구호는 수 많은 인민 대중을 반일 투쟁에로 고무하였다.

인민들은 우리 혁명군을 친자식과도 같이 사랑해 주었고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원쑤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축원하여 주었다.

그 곳 청장년들과 인민들은 우리 혁명군이 승리하고 돌아 올 때 우리 대오에 참가시켜 줄 것을 요구했고 수 많은 인민들이 전리품을 운반하는 데 자진하여 나섰던 것이다.

김 일성 동지의 《신출귀몰》하는 전술과 바로 이러한 인민들의 적극적인 원호 밑에 우리 혁명군은 무산 지구 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고 기어코 조국을 해방할 굳은 결의를 다지면서 다시 두만강을 건넜다.

* *

참으로 무산 지구 전투 승리는 조선 인민의 반일 투쟁에서와 일제의 침략 정책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

그것은 우선 조선 인민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높여 주었으며 인민 대중의 계급적 각성과 승리의 신심을 제고시켜 주었다.

무산 지구 전투는 일제에 심대한 타격을 줌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국내 방어 체계가 난공불락의 요새라던 《신화》를 여지 없이 깨여 버렸다.

적들은 무려 20여만의 대병력을 풀어 우리 조선 인민 혁명군을 《소멸》하겠다고 10여 년 간 검질기게 달려 들었으나 그 때마다 타격을 받은 것처럼 무산에서도 치명적 타격을 받고 녹아 났다.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휘 하에 진행된 무산 지구 전투에 대한 소식은 일제의 갖은 발악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방방곡곡에 삽시에 퍼졌다.

인민들은 가는 곳마다, 모이는 곳마다에서 김 일성 동지의 탁월한 전략 전술과 신출귀몰한 전법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으며 우리의 승리를 열렬히 환영하면서 호언장담하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조소하였다.

무산 지구 전투 이후 인민들의 혁명적 기세는 더욱 고조되였으며 《김 일성 부대》는 전멸되고 몇 명만이 남아 있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던 적들의 허위 선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말았다.

나는 그 때 인민들 속에서 돌아 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무산에서 수백 명의 왜놈들이 녹아났다. 아마 왜놈들이 망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왜놈들이 날고 뛴대야 백두산 천기를 타고 난 김 장군이야 당할 재간이 있나!》

이 짤막한 인민들의 말 속에서 무산 지구 전투가 조선 인민들의 기세를 돋우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조국의 운명이 칠성판에 오른 시각에 인민 혁명군이 조국에로 진출한 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 주고 매개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투쟁의 불씨를 지펴 주었으며 자나 깨나 깊이 흠모하고 존경해 온 민족의 영웅이며 수령이신 김 일성 동지의 주위에 그들을 더욱 굳게 결속시켰다.

인민들은 자기의 수령을 모시고 있으며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긍지로 하여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다.

무산 지구 전투를 계기로 하여 혁명은 더한층 앙양되였다.

혁명 조직들의 활동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였고 국내 각지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밑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애국적 인민들의 반일 투쟁이 더욱 거세차게 일어 났다.

1940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에 만도 로동자들은 일제의 착취와 탄압을 반대하여 623 회에 달하는 파업을 일으켰으며 이에는 연 4만 9,000 명 이상의 인원들이 참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는 무산 지구 전투를 통하여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국내 혁명 운동을 앙양시킴으로써 우리의 조국 력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금자탑을 아로새기게 되였다.

무산 지구 전투는 또한 《반공》을 부르짖으면서 쏘련과 몽고를 위협하며 중국에 대한 침략 전쟁을 개시한 일제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고 놈들의 배후를 견제함으로써 무장으로 직접 쏘련을 옹호하였으며 몽고 인민과 형제적 중국 인민의 반일 무장 투쟁을 도울 수 있었다.

* *

이상으로 나는 이 글을 끝 내려고 한다.

나는 원쑤들과의 싸움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전우들의 유언을 실천하기 위하여, 활짝 꽃 피고 있는 조국의 더욱 무궁한 륭성 발전을 위하여, 무릎에 안겨 나의 흰 머리카락을 세며 재롱을 부리는 어린것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을 우리 조국 남녘 땅에서 몰아 내며 이 지구 상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총을 더욱 굳게 틀어 잡으려고 한다.

나는 25년 전에도 김 일성 동지의 전사였으며 오늘도 그이의 전사다. 나는 김 일성 동지를 자기의 수령으로 모시고 있는 것을 더 없는 영예와 자랑으로 생각한다.

기술, 문화, 사상 혁명과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 제고

정 지 수

김 일성 동지는 전국 근로자 학교 및 근로자 중학교 강사 열성자 회의에서 오늘 우리 나라에서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은 비단 농촌에서 뿐만 아니라 공업 분야까지 포함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으로 추진시켜야 할 중심적인 혁명 과업이며 이에 있어서 문화 혁명이 첫 공정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은 서로 밀접한 련계 하에 서로 의존하며 제약하는 관계에 놓여 있으며 따라서 그것들은 통일적 과정으로서 수행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사상 혁명을 확고히 선행시키면서 여기에 병행하여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우리 당의 이 방침은 혁명 실천에서 의식의 능동적 역할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가장 정당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혁명을 보다 빨리, 보다 잘 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주인공들인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급속히 높여야 할 과업이 전면에 제기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높이는 것은 그 자체가 문화 혁명의 주요한 내용으로 되는 동시에 문화 혁명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 주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기술 혁명 수행의 중요한 전제이며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 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한 조건으로 된다.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 제고는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이며 이 세 가지 혁명을 호상 밀접히 련결시키고 통일적 과정으로 수행케 함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공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와 최근에 있은 전국 근로자 학교 및 근로자 중학교 강사 열성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다시금 현 시기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수준을 최단 기간 내에 중학교 졸업 정도 이상의 수준에까지 끌어 올릴 데 대하여 교시하였다.

이 문제를 급속히 해결함으로써만 오늘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성과 있게 수행할 수 있다.

* *

지식은 문화성의 기초이고 인간 실천 활동의 무기이다.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일반 지식 수준이 없이는 정치 사상 교양이 있을 수 없으며 그들 속에서 현대적 기술을 론할 수 없다. 문맹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정치 밖에, 기술 밖에, 그리고 문화 생활 밖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공산주의 교육 문제에서 지'적 교육을 중요하게 제기하면서 과학 지식의 습득을 근로자들과 청소년 교양의 기본 과업의 하나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간주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

류가 이룩한 그 모든 지식의 부를 가지고 자기의 머리를 풍부하게 만드는 때에라야 비로소 공산주의자로 될 수 있는 것이다.»(전집 제 31 권,343 폐지)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는 문화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의 주요 구성 부분으로 삼고 있으며 또한 문화 혁명에서는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의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다.

여기로부터 현 시기 우리 당은 혁명을 계속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키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중심 과업으로서 기술 혁명, 사상 혁명과 함께 문화 혁명을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거기에서도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 제고를 매우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 제고—이것은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첫 공정이며 그 전제 조건이다.

일반 지식이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사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게 하며 높은 정치,문화 수준과 기술 지식을 갖게 하는 기초적인 과학 지식이다.

국어, 수학을 비롯한 일련의 자연 및 사회의 일반 지식이 있음으로써만 근로자들은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공산주의 의식과 공산주의 도덕 품성을 성과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자립적으로 현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능을 습득할 수 있다.

일반 지식은 우선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에 관한 기초 지식으로 무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본 지식과 기능을 파악케 하여 기술 혁명의 수행과 문화 혁명 자체를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전제 조건을 가지게 한다.

례하면, 일반 지식의 기초인 국어 학습은 근로자들이 우리 나라 말과 글을 정확하게 읽고, 쓰고, 해득하고, 말할 수 있게 하며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얻게 한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문화, 사상, 기술 수준 제고의 기초로서 그들에게 모든 부문의 과학 지식을 섭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준다. 또한 문학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과 창작 능력을 배양하여 준다.

수학 과목들의 학습은 각종 계산 능력을 배양하여 근로자들을 정신 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그들에게 자연 과학과 기술 과학 지식을 심오하게 습득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물리, 화학, 생물 등 자연 과학 과목들의 학습은 근로자들에게 자연 현상의 본질과 호상 관계를 리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업과 농업 생산의 기본 원리를 체득하게 함으로써 현대 생산 기술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이와 같이 일반 지식은 도시와 농촌에서의 문화 혁명을 심화 발전시키는 토대로 되며 나라의 기술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게 하는 주요한 전제 조건으로 된다.

일반 지식은 또한 근로자들에게 자연과 사회의 객관적 발전 법칙을 리해하게 하며 과학적 세계관을 형성시키는 튼튼한 기초로 된다.

국어와 수학, 그리고 자연 과학 과목들의 학습을 통하여 근로자들은 객관 세계의 각종 현상의 본질, 세계의 물질성과 그 발전 법칙의 기본을 리해하게 되고 자연 현상의 부단한 변화 발전, 자연 현상의 상호 련관, 상호 제약성 등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유물 변증법적 세계관 형성의 기초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

특히 력사, 지리, 국어(문학) 등의 학습을 통하여 근로자들은 인류 사회와 우리 나라 력사,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게 되고 인류 사회의 발전 법칙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적 세계관 형성에 중요한 기초를 얻게 된다. 또한 력사를 비롯한 일반 사회 과학 지식들의 학습 과정을 통하여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한 공산주의 교양,

혁명 전통 교양, 당 정책 교양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된다.

여기에서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은 그들에게 단순한 지식을 습득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산주의적 세계관 확립과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을 가지게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지식의 습득 과정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는 높은 사상성, 고상한 도덕 품성, 예술성이 배양되게 되며 현대적 기술 기능을 소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는 사물에 대한 관찰력, 기억력, 사고력 등이 발전되게 되며 보다 높고 전문적인 지식을 심오하게 습득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게 된다.

례를 들어, 수학의 응용 문제를 푸는 행정에서 근로자들에게는 사고력, 인식력이 배양되게 되며 론리적 사고력이 발전되고 자연 지식의 습득 행정에서 관찰력, 주의력,인식력이 발전되게 된다.

일반 지식은 또한 신체의 균형적 발육을 위한 근로자들의 체육 사업과 보건 위생 사업, 정서 생활을 위한 군중 문화 사업 기타 모든 생활을 알뜰하게 문화적으로 꾸리는 사업의 기초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혁명의 주요한 부문들인 체육, 보건, 군중 문화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전제 조건을 조성하여 준다.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이렇듯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토대로, 그 전제 조건으로 되며 또 그 자체가 문화 혁명 수행의 주요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며 기술, 사상 혁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을 높여 줌으로써만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성과 있게 수행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을 계속하여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전면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공고 발전시킴과 함께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인간으로 되게 하자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을 높이는 것은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성과 있게 수행하는 첫 공정인 동시에 그들을 공산주의적 새 형의 인간으로 육성하는 첫 공정으로 된다.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된다는 것은 공산주의적 세계관이 확립되고 지, 덕, 체가 겸비된 인간으로,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는 고도로 발전된 현대 생산 기술을 요구하며 따라서 이러한 현대 기술의 발명과 그의 사용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높은 일반 과학 지식과 문화 기술 수준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매개 근로자들이 나라와 사회의 완전한 주인으로 되기 위해서도 높은 지식을 소유할 것을 긴절하게 요구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근로자들의 높은 정치 사상 의식과 고상한 공산주의 도덕 품성을 요구한다. 이것도 자연과 사회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옳은 관점을 소유시키는 일반 지식에 토대하여서만 가능하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간고하고 웅대한 사업이다.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체력을 건전하게 단련시키지 않고서는 정신 로동 및 육체 로동에서나 조국 보위에서 자기들의 능력을 남김 없이 발휘하여 맡은 숭고한 혁명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사람들에게 풍부한 물질적 부만 아니라 높은 문화 예술적 소양을 요구한다. 이것 없이는 창조된 물질적 부를 옳게 향유할 수 없으며 새로운 생활을 문화적으로 즐길 수 없다.

이것도 근로자들이 일반 지식을 소유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로부터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되려면 모든 근로자들이 일반 지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 오직 일반 지식에 확고히 기초함으로써만 인류가 축적한

지식의 부를 소유하고 현대 생산의 기술 기능을 파악한 사람으로, 자기 능력의 한 측면만이 아니라 전면적으로(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이 활짝 꽃 피여 물질적 및 정신적 부의 훌륭한 생산자로, 당과 혁명에 충직한 정치 활동가로, 고상한 도덕적 품성과 문화적 소양이 풍부한 새 형의 공산주의 인간으로 될 수 있다.

바로 우리 당은, 우리의 후대들은 물론이고 전체 근로자들을 모두 이러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일'군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오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됨으로써만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공업 로동과 농업 로동의 차이를 소멸하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전체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을 제고하는 것은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을 보장하는 관건적 문제의 하나이다.

* *

근로 대중의 일반 지식을 높이기 위한 과업은 사회주의 길에 들어 선 모든 나라들이 반드시 주의를 돌려야 할 혁명 임무이다.

과거 계급 사회에서는 착취 계급이 물질적 수단과 함께 정신 문화적 수단까지 독점하고 있었다. 그리 하여 근로 대중은 물질 생활에서 빈궁하였을뿐만 아니라 문화 생활의 혜택으로부터도 제외되여 있었으며 무지와 몽매 속에서 살았다.

그러므로 정권을 장악한 로동 계급은 자기의 정권에 의거하면서 우선 생산 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고 사회주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함과 함께 사회의 주인인 근로자들을 무지와 몽매에서 해방시켜 그들에게 높은 문화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힘을 돌려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과거에 락후한 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처지에서 살아 온 인민에게 있어서 이 과업의 수행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그러므로 해방 후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는 과거 일제의 악독한 우민화 정책에 의하여 배움의 길을 빼앗겼던 전체 근로자들과 후대들에게 지식을 주며 새 조국 건설 도상에서 큰 애로로 제기된 인재의 심한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사업을 민주 건설 사업에서 모든 문제의 초점으로 간주하고 이 사업을 급속히 추진시키는 혁명적 대책을 강구 실시하였다.

이 분야에서 우리 당은 이미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 제고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전반적인 무료 교육과 초등 및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여 벌써 젊은 세대들은 다 중학교 이상의 일반 지식을 소유하게 되였다. 그 우에 새로운 기술 교육 체계가 창설되여 가까운 장래에 9~10 년제의 기술 의무 교육제가 실시될 것인바 이렇게 되면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일반 교육과 함께 기술 교육을 받게 된다. 지금 우리의 후대들은 우월한 인민 교육 체계를 통하여 모두 지, 덕, 체가 겸비된 전면적으로 발전된 쓸모 있는 인재로 육성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과 기술 수준 제고 문제 해결에서의 결정적인 전진을 의미한다.

한편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문화 기술 수준을 제고하는 성인 교육 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해방 직후 우리 당은 전체 근로자들을 장기간에 걸친 무지와 몽매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문맹 퇴치와 대중 계몽 사업을 전 당'적, 전 인민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하여 불과 2~3 년 내에 문맹을 퇴치하였다.

그 후 우리 당은 생산 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성인 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로동자, 농민들 속에서 인민 학교 또는 초급 중학교 졸업 정도 이상의 일반 지식을 소유케 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특히 우리 당 제 4 차 대회는 현 시기 근로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나라의 혁명 발전에 따라 세우기 위하여 전체 로동자, 농민들이 중학교 졸업 정도 이상의 일반 지식과 함께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지금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수 많은 근로자 학교 및 근로자 중학교들과 중등 및 고등 기술 학교, 통신 대학, 공장 대학, 공산 대학, 각종 간부 양성 기관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들에서 기술 학습과 기술 전습제가 광범히 조직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근로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과 사상 의식은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과 사상 의식을 높이는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없다. 원래 문화 혁명 과업은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성을 요한다. 더우기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그 절대 다수가 과거에 배우지 못한 조건에서 그들의 전반적 수준을 단시일 내에 높일 수 없었다. 그 결과 지금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과 기술 수준은 류례 없이 빨리 발전하고 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전반적 수준 제고의 토대로 되는 일반 지식 수준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와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 과업이 전면적으로 제기된 오늘 우리 혁명의 전진 운동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고리의 하나로 중요하게 나서고 있는 문제는 전체 근로자들, 그 중에서도 과거에 배우지 못한 40~50 대 사람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제고하는 성인 교육 사업이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함에 있어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근로자들이고 우리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것도 근로자들이다.

오직 근로자들의 일반 기초 지식을 급속히 제고함으로써만 그들의 전반적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일 수 있으며 우리 혁명 발전의 성숙된 요구인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더 빨리, 더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다.

* *

모든 근로자들을 중학교 졸업 정도 이상의 일반 지식과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한 유능한 사회주의 건설자로 되게하는 이 혁명 과업의 실현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우선 정규적인 교육 체계를 통한 청소년 교육과는 달라서 주로 일하면서 배우는 성인 교육 체계를 통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데 일정한 난관이 있다.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고 본신 혁명 사업들이 매우 바쁘다.

또한 이 과업의 실현은 주로 년령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진행된다는 데 난점의 하나가 있다. 일반 지식의 체득은 체계적으로 되여야 하고 인내성 있게 되여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유치원으로부터 인민 학교, 중학교로 밟아 올라 가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청소년들과는 달리 일이 바쁘고 학습에 숙달되지 못한 성년 근로자들에게 일반 지식을 계통적으로 가르치는 문제는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간고한 투쟁을 동반하는 혁명 사업이다.

그러나 비록 간고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혁명 사업을 능히 실현할 수 있는 온갖 조건들과 가능성들이 구비되여 있다.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누구나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여 있으며

전국 도처에 어디를 가나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우월한 교육 체계와 학습 체계가 확립되여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글을 가르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자라 났다.

그 우에 《조선 사람은 어렵게 살아 왔기 때문에 배우자는 욕망이 또한 남보다 강하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118 페지)

고대로부터 문명하고 재능 있는 인민으로서 주경 야독(晝耕夜讀)하기를 즐기던 조선 인민들의 향학열은 해방 후 우리 제도 하에서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 속에서는 세기적인 문화적 락후성을 완전히 가시고 남만 못지 않게 문명하게 잘 살기 위해서 빨리 배우려는 의욕이 타 오르고 있다.

문제는 매개 단위들에서 지도 일'군들이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 제고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심각하게 파악하고 이 사업에 한 사람 같이 동원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중학교 졸업 정도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성인 교육 사업의 성과 여부는 지금 우리 당이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기술, 문화, 사상 혁명 과업을 더 빨리, 더 잘 실현하는 관건적 문제의 하나라는 것을 일'군들 특히 이 사업을 담당한 교육 일'군들 속에 깊이 인식시키는 데 주목이 돌려져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을 제고하는 것은 간고하고 인내성 있는 투쟁을 요하는 것인 만큼 이 사업을 담당한 일'군들 속에서 혁명가적 기풍을 수립하여 그들이 완강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난관과 애로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며, 이 사업에서 우리 당의 군중 로선과 계급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거 계급 사회에서 배우지 못하여 오래 동안 무지와 암흑 속에서 살아 온 근로자들에게 글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으로부터 출발한 숭고한 혁명 사업인 것이다.

우리의 근로자들, 특히 농민들이 과거 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세기적인 문화적 락후성을 완전히 가시지 못하고 일반 지식과 기술 수준이 아직도 낮은 형편에 있는 데 대하여 모두가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 당은 지금 모든 근로자들에게 이밥에 고기'국을 먹이며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문화적으로 잘 살게 하여 주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글을 가르쳐 그들의 일반 문화 수준을 높이는 사업도 이 투쟁의 주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성인 교육 사업을 성과 있게 진행하려면 모두가 혁명적 군중 관점을 가지고 이 사업에 달라붙어야 한다.

모든 사람을 다 자기의 동지와 같이 사랑하고 친부모와 같이 존경하면서 인내성을 가지고 꾸준히 가르쳐 주고 일깨워 주어야 한다. 그리 하여 배움의 대렬에서 한 사람의 락오자도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문명한 사람으로 되여 우리의 리상인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게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성인 교육 사업을 조직함에 있어서는 정규적인 교육 체계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들과 다른 특성을 심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가 강조한 바와 같이 그들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교수 방법과 학습 조직을 연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근로자들의 학습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그것을 항일 투사들의 혁명적인 학습 방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것은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학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상적으로 꾸준히 진행하며 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선생이 되여 구체적으로 짜고 들어 군중을 인내성 있게 가르치며 학습이 근로자들 속에서 완전히 생활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 가장 힘을 많이 경주하여야 할 농촌에서 근로자들의 학습 조직과 학습 방법을 구체적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지 호상간에 서로 도와 주고 배워 주며 글 아는 모든 사람이 이 사업에 군중적으로 동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사로청, 녀맹, 직맹 등 사회 단체들에서 이런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야 하며 각급 학교의 교원 학생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맡아 나서야 한다.

또한 군중을 가르침에 있어서 그들의 수준과 특성에 맞게 까다로운 말을 쓰지 말고 쉬운 말로 헐하고 흥미 있게 하도록 교수 방법에 심중한 주의를 돌림으로써 근로자들이 공부에 흥미를 가지게 하며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리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급속히 제고하는 사업의 성과 여부는 결국 근로자들 자신이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발동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적 나이 많은 근로자들 속에 있는 과학 지식과 기술 습득에 대한 신비주의, 보수주의, 소극성 등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다.

과학 지식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근로 인민들의 고귀한 생산 실천과 혁명 투쟁 속에서 축적되여 온 경험이다. 근로 대중은 과학 지식을 배우는 데 필요한 산 경험을 풍부히 소유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고 결심만 하면 모두가 빨리,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개 단위들에서는, 근로자들 속에서 지식을 신비화하며 학습에 소극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타파하기 위한 투쟁을 혁명 전통 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전개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항일 유격대원들의 모범을 따라 모두가 신심을 가지고 분초를 다투어 가면서 배우며 책을 읽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을 빨리 높이기 위한 성인 교육 사업의 성과 여부는 또한 실천적 경험들이 말해 주고 있는 바와 같이 매개 당 조직들에서 특히 농촌의 리당 위원회들에서 이 사업을 직접 틀어 쥐고 자기 실정에 맞게 조직 정치 사업을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강력히 추진시키느냐에 크게 달려 있다.

전체 근로자들을 중학교 졸업 정도 이상의 일반 지식과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게 하는 이 혁명 과업의 실현은 현 시기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동시에 이는 장차 우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기수, 기사, 전문가의 수준에까지 끌어 올리여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되게 하며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공업 로동과 농업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애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극복하여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당 조직들과 전체 당원들은 자기들의 창조적 열성을 다함으로써 당과 혁명이 요구하는 이 웅대한 혁명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고조되고 있는 조국 통일 지향

최 창 진

남조선에서 《군사 정변》 후 일시 저조되였던 인민들의 조국 통일 지향은 최근 점차 높아 가고 있다.

현 시기 남조선에서의 사회 경제적 모순의 심각화는 인민들 속에서 통일 지향을 앙양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이 나라가 분렬되여 부모 형제 간에 생사조차 모르고 있는 현 사태를 통탄하면서 《우리의 살'길은 민족의 통일 밖에 없다》, 《남북의 통일을 위하여 총동원하라》고 한결 같이 웨치고 있는 것은 생활 체험에서 흘러 나오는 응당한 요구이다.

남조선의 현 정세는 박 정희의 파쑈 테로 통치 하에서도 혁명 력량이 점차 장성하고 있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유리하게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새롭게 끓어 오르는 조국 통일 지향은 그 깊이, 그 넓이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일련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우선 《군사 정변》 직후와는 달리 공개적인 성격을 띠고 광범한 대중 속에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에서 박 정희가 집권한 후 야수적 폭압으로 인하여 남조선 인민들은 조국 통일 구호를 직접 제기할 수 없었다. 작년 여름까지만 하여도 조국 통일 념원은 《삼천만 동포에게 호소한다》고 돌려서 밖에 말하지 못 하였다.

조국 통일 지향은 남조선에서 혁명 력량이 장성되고 《한 일 회담》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거족적인 투쟁이 전개됨에 따라 점차 파쑈적인 법 질서를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게 되였다.

남조선 출판물들은 박 정희 도당의 엄격한 보도 관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통일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과 사회계의 지향을 광범히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통일 문제에 대한 지상 토론까지 벌리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남조선 평론가들은 《작년 말 이래 한국에는 새로운 통일 무드(기운)가 대두하게 되였다》라고 론평하고 있다.

이것은 박 정희 도당이 지난 시기에는 《평화 통일》이나 《남북 협상》에 대한 말만 해도 《용공 분자》니 《적색 분자》니 하고 함부로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날로 높아 가는 인민들의 통일 열망을 더는 억제할 수 없게 되였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조국 통일을 갈망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웨침은 어느 한 계층이나 몇몇 인사들의 주장으로서가 아니라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 지식인, 《국군》, 상인, 기업가, 가정 부인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의 광범한 인사들 속에서 대중적 요구로 울려 나오고 있다.

《한국 일보》가 남조선 전역에 걸쳐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현 시기 남조선에서 《해결을 요하는 가장 절박한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인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남북 통일》이라고 대답하였다.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감이 강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려 대학교 3,000여 명의 학생들은

《4.18 3 주년 기념식》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현 《정권》 당국자와 구 정치인들을 모두 불신하면서 《남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질서의 조속한 확립》을 강력히 요구하여 나섰다.

최근 박 정희 도당의 매국 책동과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재침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대중적 시위의 기저에도 반일, 반《정부》 감정과 함께 조국 통일에 대한 념원이 반영되여 있다.

지난 4월 20일 청주 공업 고등 학교 학생 800 명은 《한 일 회담》을 《백지화하라》는 구호와 함께 《4.19 혁명 정신으로 3천만이 뭉쳐 보자, 단결 없이 남북 통일할 수 없다》는 구호를 웨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의정부의 한 로동자는 《이북에 가야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면서 월북을 기도하였으며(《조선 일보》 1964.3. 19) 경기도의 한 농민은 《언제나 통일의 날이 오겠는지 꿈 속에서도 통일을 본다》고 말하였다.

서울시 내 룡산구 룡산동 주민 90여 명은 조국 통일을 위해 《유엔군》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까지 전개하였다.(《합동 통신》 1964. 4. 10)

통일에 대한 열망은 괴뢰군 병사들 속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괴뢰군 제 2 사단 일등병 강 모는 《우리 다같이 3. 1 독립 만세를 목이 터지도록 부르면 이 땅의 아들딸들인데 마냥 이렇게 서로 외면한 채 살아야 된단 말인가?》고 하였으며(《서울 신문》 1964. 1. 13) 일부 병사들은 《월북해야 살'길》이 열린다고 하면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 입북하고 있다. 심지어 유교도, 불교도들까지도 《남북 통일은 국가의 대원이며 민족적 념원》이라고 하면서 통일제(統一祭)까지 지내는 사실이 있다.

이처럼 남조선에서 조국 통일 기운은 각계 각층 인민들 속에서 대중적 성격을 띠고 발전하고 있다.

남조선에서의 조국 통일 기운의 대중적 성격에 대하여 미 국무성 정책 작성 위원장 로스도브까지 《최근 남조선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반 사실들은 5. 16 전과는 달리 남조선 학생 인테리 계층에서보다도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남북 간의 접촉과 통일에 대한 열망이 억제할 수 없는 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자인하였다.

조국 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편승하여 남조선의 보수 세력 내부에서도 조국 통일과 남북 간의 교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보수 정객들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한 《통일 방안》의 수립을 촉구하면서 《조국 통일》 문제를 걸어 《정부》에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나라가 하루 속히 남북 통일을 성숙해야 할 국내외적 현실 하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외국의 례와 같이 우리도 스스로 통일을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겠다》(《부산 일보》 1963. 12. 27) 고 하였으며 합법적인 정치 활동을 한 《혁신계 정치인을 석방 안 하는 리유》를 따지였다.

최근 보수 정객들은 《민족 자결주의에 립각한 확고한 국토 통일 방안》의 모색을 표방하고 《국토 통일 협의회 창립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조선 일보》 1964. 1. 18) 외국 군대의 철거 후 남북 대표자 회담으로 평화 통일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국제 신보》 1964. 1. 25)

이것은 인민들의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 보수 세력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남조선에서 고조되고 있는 조국 통일 지향에서 특징적인 것은 또한 박 정희 《정권》의 외세 의존 통일론을 반대 배격하고 있는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박 정희가 《대통령 취임사》에서 제기한 통일론의 기본은 《유엔 감시 하의 총선거》론과 《승공 통일》론이다.

이 통일론은 박 정희의 창안물이 아

니고 멸망한 리 승만, 장 면의 시책을 계승한 데 불과하다.

남조선 인민들은 체험을 통하여 이러한 주장이 국토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저들의 매국 배족 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위정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외세를 배격하고 남북의 꾸준한 협상으로 통일의 타결점을 찾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박 정희가 부르짖는 통일은 《자유, 민주 량당 때와 대동소이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고식적인 〈유엔 감시하 선거론〉에 매여 달리려 하는가》라고 규탄하고 남북이 꾸준히 협상하면 민족의 《혈기가 반드시 상통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조선 출판물은 《고식적인 통일론》을 표방하면서 통일 문제에 대하여 방관시하고 있는 박 정희 도당의 반민족적 처사를 폭로하고 자주적 조국 통일을 위한 《희망적이고 창발적인 새로운 방안》을 단 한 가지만이라도 내놓을 것을 촉구하여 나섰다.

4월 초순에 한 청년은 《현 정치인들은 국토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해…북한 수뇌들과 회담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내용으로 된 수십 매의 삐라를 《국회의사당》 앞에 살포하였다.

이것은 박 정희의 통일 방안이 인민들로부터 더욱더 반대 배격을 받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남조선 인민들이 외국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조국 통일을 실현할 데 대한 우리의 통일 방안에 공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통일 지향에서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남북 간의 접촉과 교류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국한된 부문에서라도 남북 간의 길이 틔여야 한다》고 하면서 끊어진 남북 간의 련계를 회복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들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천안의 모 시민은 남북 간에 《서신, 문화, 경제 교류의 길을 열고 정치성 없는 학생 회담을 마련함으로써 인간적 접근을 이루는 한편 오직 애국 애족 일념의 협상을 벌려야 한다》고 하였으며 수원의 모 녀학생은 《남북의 문화 교류만은 과감히 단행되여야 한다》고 하였다.(《경향 신문》 1964. 1. 24)

남북 간의 접촉과 교류를 실현할 데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요구는 뉴델리, 인스브르크 등에서의 남북 체육 선수들의 상봉을 계기로 더한층 높아 가고 있다.

한 의사 김 모는 남조선 출판물에 게재된 남북 체육 선수들의 사진을 보고 나서 《오매 불망 갈구해 온 동족 분렬 해소의 예고 편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하였다(《대구 일보》 1964. 1.9) 《한국 일보》도 동기 올림픽 대회에서의 《한 필화의 입선은 민족의 영예》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남북의 접촉과 경제 및 문화적 교류의 실현이 단일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성숙된 현실적 요구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고조되고 있는 조국 통일 지향에 극도로 당황한 위정자들은 이를 회유 무마하려 하고 있다.

남조선 괴뢰 지배층은 인민들의 통일 지향을 종전처럼 파쑈적 폭압 수단만으로는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타산하고 괴뢰 정부와 여당이 《국가 안전 보장회의》 아래에 정부 기관 혹은 반관 반민 단체로서 《통일 문제 연구소》를 설치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 그들은 《이 기구의 긴급 과제》는 《우선 남북 간의 서신 왕래와 실정 소개 등을 실현》하도록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인민들에게 자기들도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듯이 가장하며 다른 한편 남조선에서 고조되고 있는 통

일 지향을 자기들의 유일적인 관리 및 통제 하에 두어 사실 상 남북 서신 거래, 래왕과 접촉, 통일 문제 등의 해결을 방해하려는 회유, 기만 책동에 불과한 것이다.

2

남조선에서의 날로 고조되는 조국 통일 지향은 인민들 자신의 생활 체험, 공화국 북반부의 영향력, 국제 혁명 력량의 장성 등과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19년 간의 생활 체험을 통하여 《통일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였다. 그들은 4월 인민 봉기 전까지만 해도 조국 통일에 대한 요구를 전면에 제기하지 못하였으며 리 승만 독재 정권만 전복되면 만사가 잘 되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 후 세 차례에 걸쳐 괴뢰 《정권》이 교체되였으나 그들의 처지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였다.

이러한 사정은 남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현 파국적 사태로부터 벗어 나기 위해서는 괴뢰 정권을 전복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인민들의 각성은 박 정희의 부패 무능과 매국 배족적 정체가 더욱 명백하여짐에 따라 더욱 높아졌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 출판물도 《미 군정을 겪고, 4. 19를 치르고 과도 정권을 거쳐 민주당 통치도 받아 보았으나 민중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태산격으로 암담하기만 하다》고 개탄하고 《아마 살'길은 민족 통일 밖에 없는듯 하다》고 썼다.

남조선 인민들은 한 날 한 시에 해방된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의 유족한 생활을 동경의 눈으로 바라 보면서 남북의 접촉과 통일을 거부하고 있는 미제와 괴뢰 도당을 저주하고 조국의 통일을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성과와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 하에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서 힘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특히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정부의 주도적이며 능동적인 방책은 남반부 인민들에게 거대한 고무적 힘으로 되고 있다.

나라의 통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해결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정당한 방침과 그에 기초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한 방안들은 그 합리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 12월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와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 및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의 공동 련석 회의에서 제시한 남북 간의 긴장 상태의 제거와 호상 리해와 민족적 뉴대를 회복할 데 대한 제안과 얼마 전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3 차 회의에서 채택된 《한 일 회담》을 분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할 데 대한 호소문이 남조선 인민들 속에 침투됨에 따라 또다시 그들 속에서 반향이 크게 일어 나고 있다.

그것은 남조선 인민들이 《북한에서 주겠다는 백미 200만 석이나 받아 배급해 달라. 북한에서는 실업자에게 일터도 준다니. 한 일 회담보다 판문점 개방 협상이 더 절실하다》(《경향 신문》 1964. 5. 12)라고 우리의 제안에 수긍하고 있는 사실들이 잘 말해 주고 있다.

조국 통일 지향의 고조는 국제 정세의 변화와 국제 혁명 력량의 장성과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모순의 가일층의 격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남조선의 위정자들까지도 《불란서의 중국 승인으로 국제 정세가 많이 변해 가고 있으며 오늘날 남북 통일 기운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성숙되여 가고 있다》고 하면서 종래의 구태의연한 저들의 《통일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최근 남조선에서 불란서 대통령 드 골이 제기한 《동남 아세

아 중립화안》과 관련하여 일시 자취를 감추었던 《중립화 통일론》이 다시 싹트게 되였다.

이 모든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남조선의 광범한 계층들과 사회계에서 강력하게 울려 나오고 있는 조국 통일 지향은 정세 발전의 필연적인 추세이다.

이 지향을 멈춰 세울 힘은 세상에 없다.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고조되고 있는 조국 통일 지향은 날이 갈수록 광범한 대중의 심장을 틀어 잡으며 더욱 심화 발전되고 있다.

이 지향은 그 요구의 내용으로 보아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 주체적 력량에 의하여 조국 통일을 실현하려는 애국 정신의 발현이다.

물론 이 지향이 아직까지는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 통일을 위한 대중적인 행동 단계에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주로 조국 통일을 념원하고 호소하는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향은 미구에 남조선에서 반드시 도래하고야 말 반미 구국 투쟁과 조국 통일의 대사변을 준비함에 있어서 커다란 작용을 놀게 될 것이다.

남조선에서의 정세 발전은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한 계단 높이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념원, 호소의 단계로부터 미제를 몰아 내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인 행동 단계의 높이에까지 올려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승리는 오직 실천적인 투쟁을 요구하며 또한 실천 활동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아무리 객관적 진리를 반영한 정당한 념원이라 할지라도 실천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그 념원은 다만 공상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며 현실을 변혁할 수 없는 것이다.

조국 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념원도 례외로 될 수 없다.

적지 않은 남조선 인민들은 조국 통일을 념원하면서도 아직도 공미, 숭미 사상에 사로잡혀 주체적 반제 애국 력량을 단합하여 투쟁한다면 미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통일을 념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공산주의에 대한 리해가 부족하고 적들의 허위 선전에 기만 당하고 있는 데로부터 박 정희 도당의 《반공 통일론》에 동조하면서 《한국의 이니샤티브에 의한 국토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현상들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도 남조선 인민들이 미제가 자기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교활한 수법으로 우리 민족을 분렬시키며 공산주의에 대하여 터무니 없이 비방 중상하는 악랄한 《반공》 선전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고 있다는 단적인 표현이다.

그러므로 남조선 인민들을 숭미, 공미, 《반공》 사상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 더욱 궐기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미제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 제도의 우월성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한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기만 책동과 그에 아부 추종하는 주구들의 매국 배족 행위를 철저히 폭로 분쇄하고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여야 한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지금 헤여 날 수 없는 궁지에 빠지고 있으며 그들은 대중의 투쟁을 무엇보다도 두려워 하고 있다.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 하에 단결된 인민의 힘은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 내고 그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조국 통일의 위업을 성취하고야 말 것이다.

장편 소설 《대하는 흐른다》에 대하여

김 하 명

천 세봉의 장편 소설 《대하는 흐른다》(제 1 부)는 최근 년간 우리 문학이 당 문예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거둔 또 하나의 빛나는 성과이다. 장편 소설 《대하는 흐른다》는 인민들 속에서 널리 애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극으로 상연되여 인민들의 계급 교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8. 15 해방은 유구한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 온 새 시대의 서곡으로 되였다. 력사는—새 생활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떠한 나라를 세워야 하며 그것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모든 계급에게 이런 절박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각이한 계급적 처지와 저마다의 리해 관계에 따라 이에 대한 대답은 한결같지 않았다.

장편 소설 《대하는 흐른다》는 해방 직후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 하에 새 생활 창조의 길에 들어 선 조선 인민의 력사를 대서사시적 화폭으로 진실하게 재현하면서 우리 당 로선의 정당성을 힘있게 확인하고 있다.

장편 소설 《대하는 흐른다》는 동해안의 한 농촌 지대 군 소재지와 신 구안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 곳 인민들이 해방과 함께 반동들과 반당 종파 분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물리치고 새 인민 정권을 세우며 3. 7 제를 위한 투쟁을 거쳐 토지 개혁의 실시로써 세기적 숙망이던 땅의 주인이 되는 거창한 력사적 흐름을 재현하고 있다. 작품은 뛰여 난 사실주의적 전형화에 의하여 한 지방의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해방 직후 우리 인민이 체험한 위대한 력사를 전면적으로 보여 주었으며 각계 각층의 정치적 동향과 투쟁, 그 생활 발전의 합법칙성을 정당하게 밝히였다. 이 작품에서 전개되는 사건들은 당시 우리 나라의 그 어느 군, 그 어느 마을에서도 볼 수 있던 일반적 현상이였고 작품의 주인공들은 당시 그 어데서나 만날 수 있던 낯 익은 사람들이다.

작품은 이렇게 주권과 토지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기본 사건으로 하면서 시종일관 이 위대한 흐름이 어떠한 힘에 의하여 인도되고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다. 작자는 작품의 앞 머리에 직접 다음과 같이 썼다:

《위대한 진리의 대하가 흘러 간다. 어두운 질곡의 밤에 시작되여 빛을 뿌려 이 나라를 일깨우고 삶의 샘물과 호흡의 열기로써 이 불행했던 나라를 구원한 오직 밝고 옳으며 참신하고 위대한 흐름이 도도히 흘러 간다.

계곡을 뚫고 바위를 밀고 숲과 모든 험한 장애를 열어 헤치며 흘러 온 장쾌한 흐름… 오늘은 무변대야에 굽이치는 장강(長江)… 그 장려하고 줄기참이 다시 또 있으리!》

작자 자신의 이 힘 있는 웨침은 작품의 사상적 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작품은 일제 통치의 암담하던 시기에 《빛을 뿌려 이 나라를 일깨우고》 《이 불행했던 나라를 구원한 오직 밝고 옳으며 참신하고 위대한 흐름》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인 사건과 인물 형상을 통하여 생동하게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작품의 곳곳에서 령도자를 기다리는 인민들의 뜨거운 념원과 두터운 신망의 토로를 들을 수 있다. 가령 조국이 해방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앞으로 나라가 어떤 길로 나갈 것인가를 알아 보려고

찾아 온 마을 사람들과 우국지사인 배 덕현과의 대화는 당시 전체 조선 인민의 한결같은 기분과 지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그래 앞으로 조선은 어떻게 될가요?〉

사람들은 또 배 덕현에게 물었다.

〈그야 민주 정치가 실시돼야지〉

〈민주 정치라니요〉

〈민주 정치를 모르나? 우리 백성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단 말일세〉

………

〈그래두 백성들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도록 령도를 하는 수령 되시는 분이야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물론 있어야지, 그러게 그 수령으로 선 우리 조선에 김 일성 장군이 계신단 말야, 조선의 해'빛은 장백산 우에서 비쳐 내리고 있네〉

……

김 일성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자 사람들은 웅성웅성 끓었다…》

작품은 복잡하고 첨예하였던 해방 직후의 정치 투쟁을 생동한 사실주의적 화폭으로 재현하면서 우리 당의 로선, 김 일성 동지가 일찌기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에서 천명하신 사상의 위대한 승리의 로정을 보여 주고 있다.

작품에서는 이 기본 주제와의 관계에서 해방된 인민들의 급속한 정신적 장성 문제, 민주주의 혁명 수행에서의 로농 동맹의 의의와 인테리의 역할 문제, 농민들에 대한 사상 교양 문제, 청년 남녀들의 새로운 애정·륜리 문제 등 수다한 부주제들이 천명되고 있다.

이리하여 이 작품은 오늘의 사회주의 지상 락원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가, 그 위대한 구상의 실현을 령도한 조선 로동당이 어떻게 창건되고 공고화되였으며 그 밑뿌리가 무엇인가를 보여 주는 장편 소설로서 그 주제 탐구의 대담성과 영웅적 현실 반영에 적응한 대서사시적 구성과 진실한 생활 묘사의 힘에 있어서 우리 문학 발전의 새로운 지표로 되였다.

작품이 독자들에게 주는 심각한 인상은 우선 생활 묘사의 진실성이다. 작자는 생활이 제기하는 모든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대하였으며, 그 현상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심오한 사회 정치적 의의를 천명하기 위하여 거대한 창조적 노력을 기울였다. 작품은 생활의 어느 한 측면만이 아니라 토지를 위하여 싸우는 농민들의 생활과 투쟁, 그들의 인정 세계와 성격적 특성을 다른 계급들과의 밀접한 련관 속에서 묘사함으로써 당시 우리 사회의 발전 운동을 전면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작품은 그 사상적 구상을 중심 주인공 강 형진을 비롯한 80여 명의 각계 각층 인물들의 복잡한 호상 관계를 통하여 구현하고 있다. 작품에는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들의 계급적 처지와 개성적 특성이 각이하고 다양하지만 력사적 흐름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들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형상 집단으로 구분된다. 즉 새 력사를 창조하는 인민의 편에 선 긍정 인물로서 리 득범, 장 길봉을 비롯한 로동자들, 한 덕삼, 마 영기, 배 덕걸 등을 중심으로 한 신 구안동의 농민들, 배 명준, 박 일과 같은 선진 인테리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 선두에는 항일 투사—공산주의자 강 형진이 서 있다. 이들 긍정 인물과 대립하여 낡은 사회 제도를 유지하려고 발악하는 부정 인물의 계렬에는 지주 배 덕수와 그의 아들 배 명달, 배 덕수의 앞잡이 배 치순, 미제의 앞잡이로 고용된 배 명달의 졸개 서 상국, 악질 종교인 김 장로, 김 병설, 반당 종파 분자 최 일벽 등이 들어 있다.

작자는 이 두 집단 간의 적대적 대립 관계를 통하여 당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적 및 애국적 력량과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 있는 미제의 힘에 의지하여 추악한 목숨을 연장해 보려고 발악하는 반동 세력 간의 적대적 모순과 투쟁을 반영하였으며, 반동 세력의 패망의 불가피성을 보여 주었다.

작자는 생활에 튼튼히 의거함으로써 인물들의 호상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였으며 계급 투쟁의 준엄성을 단순화하지 않았다. 작자는 개별적 인물들의 구체적 운명과의 통일 속에서 아주 복잡하게 얽힌 계급 관계와 그 투쟁의 합법칙성을 설득력 있게 밝히였다. 같은 인테리 출신으로서 맑스-레닌주의의 진리와 인민의 힘을 믿고 혁명의 편에 굳건히 서서 나아가는 배 명준과, 두 정치 세력 사이에서 동요하면서 대세를 관망하다가 끝내는 반동들의 손에 의하여 비극적인 종말을 가져온 장 인표, 그리고 빚에 몰려 지주 배 덕수의 첩으로 팔려 가서 불행한 생애를 마친 빈농의 딸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범죄의 소굴에서 한 걸음씩 광명의 세계에로 접근하고 있는 배 명희의 형상 등은 계급 투쟁의 복잡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작자는 이 형상들을 통하여 오직 진리를 믿고 인민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작품에서는 우국지사 배 덕현, 선진 인테리 배 명달 등 기본 계급 출신이 아닌 간부들을 아량 있고 너그럽게 대해 주는 강 형진의 형상을 통하여, 또한 농조와 공청 등 근로 단체의 조직 로선을 두고 벌어진 반당 종파 분자 최 일벽과의 투쟁 과정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우리 당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의 승리의 로정을 생동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강 형진의 형상은 작품의 기본 사상을 직접적으로 체현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이 작품에 묘사된 기본 사건의 중심에 서서 혁명 력량을 묶어 세우고 그들을 이끌어 나아가고 있다.

그는 일찌기 고향 땅에서 농민들의 소작 쟁의가 일어 났을 때부터 투쟁의 길에 나섰으며 투쟁 과정에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의 성원으로 된 투사이다. 그는 일제 경찰에 체포되여 형무소에서 형을 받고 있다가 8. 15 해방으로 출옥하자 지방의 혁명 력량을 묶어 세워 공산당을 조직하고 당원들의 일치한 의사에 의하여 군당 비서로 된다. 그는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이 제시한 로선을 충실히 집행하는 길에서 인민의 승리와 조국의 미래를 보며 오직 그 로선을 따라 투쟁을 지도해 나간다. 그는 이러한 혁명 투쟁 경험과 높은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주위 일'군들이 정치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범하는 이러저러한 편향들을 제때에 바로잡아 주며 당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주위에 광범한 군중을 묶어 세우며 제기되는 복잡한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작품은 그가 높은 정치적 식견과 소박한 인민적 품성으로 하여 인민들로부터 얼마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작자는 강 형진과 장 인표 간에 전개되는 론쟁을 우연히 듣고 느끼는 명희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웃방에서 벌어진 거창한 내용의 이야기가 자기의 연약한 가슴엔 무언지 모르게 무거운 압박감으로 육박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강 형진의 이야기에선 어덴지 모르게 조선의 굳건한 앞날이 내다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공산주의자들이란 바로 저런 사람들인가? 명희는 이 때까지 상종해 온 명준이에게선 그렇게까지 느끼지 못한 철저성, 명확성, 그리고 놀라울만한 큰 힘을 강 형진의 이야기에서 느끼였다. 그러면서 막연하나마 한 나라의 운명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어깨 우에 놓여져야 하리란 생각도 들었다.》

확고한 계급적 립장과 혁명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넓은 도량과 명철한 지혜, 난관 앞에서의 불요 불굴성 등은 공산주의자—혁명 투사인 강 형진의 주요한 성격적 특성이다. 작품에서는 정치 일'군—혁명가로서의 강 형진의 형상을 각계 각층 인물과의 관계에서 아주 다면적으로, 개성이 뚜렷하고 생동하게 그리였다. 우리는 이 형상을 통하여 항일 투사—공산주의자들의 혁명가적 품성, 그 사업 방법과 사업 작풍을 배우며 공산주의자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는 것을 잘 알게 되며 자기 사업에 대한 긍지와 승리의 신심을 더욱 굳게 한다.

장편 소설 《대하는 흐른다》가 달성한 또 하나의 성과는 계급적 원쑤들의 형상을 깊이 있게, 성격의 다양성을 통하여 그려 냈으며 그들의 리해 관계의 모

순을 생동한 예술적 화폭으로 밝혀 낸데 있다. 작자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혁명적 견지에서 첨예한 계급 투쟁의 력사로 엮어지고 있는 당대 시기의 생활을 정확하게 고찰하고, 진정한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의 힘에 의하여 구축되는 낡은 세력들의 몰락 과정을 설득력 있게 그리고 있다.

모든 사실주의 문학은 그것이 생활의 진리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불가피적으로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 사회의 계급적 모순과 투쟁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장편 소설 《대하는 흐른다》에 있어서는 어떤 개별적 분야에서의 모순이나 투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 발전의 한 단계에서 진행된 계급 투쟁을 전면적으로 재현할 수 있도록 소설을 구성하였다는데 그 특성이 있다. 이것은 해방 후 우리 인민의 새 생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오늘 우리 작가들의 예술적 기량의 장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해방 후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의하여 지도된 우리 인민의 생활과 투쟁은 보다 목적 의식적인 것으로 되였으며 각계 각층 호상간의 련계는 더욱 강화되고 그 활동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작자는 이러한 생활 내용의 특성에 적응하게 작품을 구성하였으며 인민의 계급적 원쑤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사회 경제적 토대, 정치적 배후 관계, 사상 도덕적 본질과 풍모 등에 이르기까지 다면적인 묘사를 시도하였다.

작품은 우선 지주 배 덕수를 비롯한 해방 직후 정치 무대에 나타나서 어부지리를 탐내던 이른바 군내 유지들—금융 조합장 장 석근, 중학 기성회 회장 장 일수, 정미업자 강 치덕, 사법 대서쟁이 장 광익, 보험 외교원 김 병설, 김 장로를 비롯한 악질 종교인 등의 형상을 통하여 반동 분자들의 계급적 본성과 정치적 동향을 진실하게 재현하였다. 작자는 이 자들의 교활한 성격과 비도덕적이며 비인간적인 행위, 그들이 인민과 리탈되고 인민 앞에 지은 죄과로 하여 응당한 심판을 받고 파멸의 구렁텅이에로 굴러 떨어지는 과정을 진실하게 묘사하였다. 동시에 소설은 이런 계급적 원쑤들이 그 어떤 처지에서나 제 스스로는 결코 착취와 압박의 《권리》를 버리려고 하지 않으며 호사스런 생활과 특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욱 악랄하게 발악한다는 생활의 진리를 확인하고 있다.

배 덕수는 해방된 후에도 인민의 고혈을 빨아 먹고 살아 온 자기의 죄과를 뉘우칠 대신에 오히려 일본인 지주 나까무라의 토지 문서를 무상으로 넘겨 받아 그 소작료까지 받아 먹으려고 음모를 꾸미며, 3. 7 제와 토지 개혁을 위한 농민들의 투쟁을 반대하기 위하여 서슴없이 미제와 손을 잡는 데로 나아간다. 김 장로를 비롯한 악질 종교인들이 외래 침략 세력과 결탁하고 토착 지주들과 합세하여 감히 폭력으로 인민 정권을 파괴하려고 음모하여 나서는 데서도 반동 세력의 계급적 본성이 뚜렷이 표현되여 있다. 결국 이 자들은 공산당의 정확한 지도를 받는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박멸되였으며 자기 상전 미제의 품으로 도망쳤다. 작품에 묘사된 계급 투쟁의 대화폭은 오직 단결된 투쟁에 의해서만, 수탈자에 대한 수탈에 의해서만 인민은 자기의 생활 상 권리를 찾을 수 있으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장편 소설 《대하는 흐른다》는 자기의 진실한 사실주의적 화폭으로 나라의 주인이 된 인민의 정신적 면모와 그 무진장한 창조적 힘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이 창조한 마 영기, 한 덕삼, 장 길봉, 배 덕걸 등 수 많은 로동자, 농민 출신 인물들의 형상은 인민들이 착취와 압박의 기반에서 해방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들은 계급적 원쑤에 대해서 비타협적이고 혁명성이 강하며 소박하고 의리에 밝은 공통적인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아직 정치적 식견이 어리고 단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 과오도 범하나 당의 옳바른 지도와 교양에 의하여 그것을 제때에 시정하고 부단히 전진하며 세련된 일'군으로 급속히 장성한다. 그들의 리상과 포부는 무한히 높고 광활하다. 작가는 특히 꿈 많고 생기 발랄한 성격의 소유자들인 청년 마 영기, 장 길봉을 비롯한 정치 강습소 강습생들의 생활을 매우 인상 깊게 묘사하고 있다. 첫 추위가 으르렁거리며 엄습해 온 섣달 어느 날 밤에 3.7 제를 거부하고 은밀히 농민들에게서 소작료를 받아 들이고 있는 배 덕수의 흉책을 쳐부시기 위하여 투쟁에 나선 강습생들의 름름한 모습과 당당한 기상은 얼마나 믿음직한가!

《…그들은 찬바람이 씽씽 불어 가는 데도 귀와 볼편이 화끈화끈해서 힘이 북받쳐 노래를 부른다.

민중의 기 붉은 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시체가 식어 굳기 전에
혈조는 기'발을 물 들인다.

웅글은 합창 소리는 련속 강으로 퍼져 가고 있다…어둠이 잠긴 속에서 검은 강물이 몸부림하듯 뒤설렌다…

노래를 부르는 마 영기의 가슴은 찢기는 것 같이 아팠다. 그러나 그의 눈은 이글이글 서슬이 올랐다. 눈 앞엔 거창한 환상이 있다. 싸움이 벌어지고 온 천지에 붉은 기가 나붓긴다. 그 무엇이 이 판가리 싸움에 들어 선 화산 같은 심장을 막으랴! 엄숙하게 나가자. 비애도, 사랑도 넘어서 나가자! 마 영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우렁차게 울렸다.》

마 영기는 조국의 미래와 련결된 농촌 청년으로서 작가가 애정을 기울여 그려 낸 형상이다. 작품의 전체 구조로 볼 때에 마 영기는 강 형진과 함께 화폭의 중심 위치에 서 있으며 등장 인물들 중에서 가장 미래가 내다 보이는 인물로, 따라서 제 2 부에 가서 더욱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인물로 설정되여 있다. 그는 결기 있고 정의감이 강하며 《홍 길동》이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청년으로서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사상 정치적으로 단련되며 확고한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토지 개혁을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는 청년 간부로 자라 난다. 해방 전에 갈고치에서 머슴을 살다가 해방되자 인민 주권과 토지를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서 나아가는 한 덕삼의 형상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장편 소설 《대하는 흐른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하나는 작가의 사상 정치적 립장과 진지한 현실 연구와 부단한 예술적 기량의 련마가 작품의 사상 예술적 성과를 규정하는 가장 주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라고 가르친 우리 당 문예 정책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힘있게 확증하였다는 점이다. 이 작품이 높은 사상 예술성을 지니게 된 것은 우선 작가가 우리의 현실을 열렬히 긍정하며 계급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부름에 해답을 주려는 정당한 사상 주제적 과업을 설정한 것과 관련되여 있다. 소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문학 예술의 사상성과 예술성은 결코 분리되지 않으며 사상성을 떠난 순수한 예술성이란 있을 수 없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우리의 새로운 민주주의적 예술은 반드시 높은 사상성을 가져야 하며 인민에게 투쟁의 무기로서 복무해야 한다고 하면서 《예술성으로 더욱 강하여진 고상한 사상성—이것은 어떠한 예술 작품을 평가함에 있어서든지 유일하고 정당한 범주》(《선집 제 4 권, 1953년 판, 39 폐지)라고 교시하였다. 예술 작품에서 작가가 제기한 사상 주제적 과업이 정치적으로 정당하고 보다 철박한 현실적 의의를 가질수록, 생활의 본질을 보다 진실하게 재현하면 할수록 그 만큼 예술성의 높이도 제고된다.

작가 천 세봉은 자기의 전 창작 과정을 통하여 사상 예술적으로 부단히 전진하고 있다. 중편 소설 《싸우는 마을 사람들》, 장편 소설 《석개울의 새 봄》, 《대하는 흐른다》 등은 그의 공통적인 작가적 개성을 뚜렷이 보여 주면서 동시에 각각 고유한 혁신적 성과를 첨부

하고 있다. 장편 소설 《대하는 흐른다》는 《석개울의 새 봄》이 가지고 있는 3부작으로서의 구성 상 약점을 대담하게 극복하고 위대한 영웅 서사시적 현실을 보다 폭 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인물들의 성격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언어적 표현 수단과 수법들을 솜씨 있게 구사하고 있다. 장편 소설은 아름다운 우리 나라의 자연 묘사에 있어서, 인물들의 내면 세계를 심오하게 추구하는 데 있어서, 특히는 형상 창조에서의 민족적 특성 구현 등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으며 우리 문학의 전반적 발전에 적지 않게 이바지하였다.

장편 소설 《대하는 흐른다》는 력사의 한 시대를 전체 포괄적으로 재현할 것을 사상 주제적 과업으로 제기한 다부작으로서 이제 제 1 부가 끝 났을 뿐이다. 따라서 어떤 인물들의 운명은 이미 끝이 났으나 많은 인물들의 성격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묘사되여 있으며, 어떤 문제는 이미 밝혀졌으나 또한 많은 사회 미학적 문제들은 앞으로 해명되여야 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우리는 작가가 나날이 장성하는 우리 인민의 미학적 요구에 수응하여 진지한 창조적 탐구를 경주함으로써 생활과 성격 발전의 론리에 충실하며 천리마 시대의 금자탑으로 남을 우수한 제 2 부, 제 3 부를 보여 주리라고 확신한다.

근 로 자 제 10 호 (루계 248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5월 17일 발 행 • 1964년 5월 20일

ㄱ—430315 값 40 전